

금주의 기도

찬양과 존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참 기쁨과 은혜가 늘 차고 넘쳐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세상 가운데서 참 진리이신 예수그리스도를 늘 발견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번 1-3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2년 10월 15일 (토) 제 1894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하나님의 밀수꾼’, 앤드류 형제 소천

CT, 오픈도어선교회 창립자, 앤 반드 빌의 삶과 사역 정리 소개

‘주님, 제 짐 속에는 이 국경을 넘어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져다 주고 싶은 성경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은 눈먼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 눈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국경 수비대원들이 보지 않았으면 하는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앤드류 형제로 알려진, 네덜란드 복음주의자이자, 폐쇄된 공산주의 국가들에 성경을 밀반입한 인물인 앤 반드 빌이 94세의 일기로 소천했다.

반드 빌은 파란색 폭스바겐 비틀에 성경을 감춘 채, 국경 수비대를 통과한 이야기를 담은 그의 선교 사역 간증집 “하나님의 밀수꾼”이 1967년 출간됨으로 유명해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밀수꾼은 복음주의 저널리스트인 존과 엘리자베스 셰릴 공동저작이며, “Brother Andrew”라는 그의 가명으로 출간되었

다. 이 책은 천만 부 이상 팔렸고, 35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이 책은 수많은 다른 선교 밀수꾼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반드 빌의 사역인 오픈도어선교회에 자금을 제공해 주었으며, 기독교 신앙과 삶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나라에서 고난 받고 있는 신자들에게 대한 복음주의 교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반드 빌은 복음주의 교회 교인들이 자신을 영웅적이고 특별한 존재로 추켜세운 것에 대해, 핵심을 놓쳤다고 항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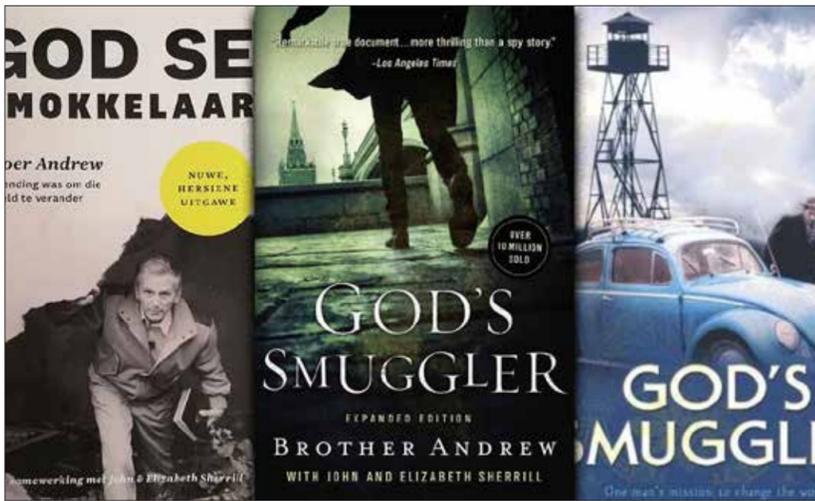
“저는 복음주의 스텐트맨이 아닙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제가 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Died: Brother Andrew, Who Smuggled Bibles into Communist Countries: Founder of Open Doors said he wasn't an "evangelical stuntman" but a faithful Christian following the leading of the Spirit)

‘하나님의 밀수꾼’의 성공으로 오픈도어선교회의 수장 역할과 기금 모금자를 맡게 된 이후 십여 년 간 그가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동독, 불가리아 및 다른 소련 연방 국가들에 얼마나 많은 성경을 밀반입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수백만 권일 것으로 추정할 따름이다. 1960년대 후반에 유행했던 네덜란드 농담에는 이런 것이 있다. “러시아인들이 달에 처음 도착한다면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 성경을 잔뜩 든 앤드류 형제.”

그러나 반드 빌의 입장에서 그 권수를 추적하지 않았고, 그 정확한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저는 통계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그는 2005년 인터뷰에서 말했다. “우리는 세지 않아요. ...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사서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반드 빌은 1928년 네덜란드에서 가난한 대장장이와 병약한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났



다. 그는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군이 중립국을 침공했을 때 12살이었고, 존과 엘리자베스 셰릴에게 자세히 설명한 대로, 점령 기간 중 나치 병사로 차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도랑에 숨어 지내기도 했다. 1944년 기근이 네덜란드를 강타했을 때, 반드 빌은 많은 네덜란드 사람들처럼 살아남기 위해 톨링 뿌리를 먹기도 했

다. 전쟁이 끝난 후, 반드 빌은 네덜란드 군대에 입대하였고, 인도네시아 독립 투쟁을 진압하는 임무를 가진 식민지 진압군으로 인도네시아에 파병되었다. 그는 현지인들을 죽이기 위해 총격을 발사하기 전까지는 그곳에서의 모험적 생활에 대해 흥분하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반드 빌은 인도네시

아 한 마을의 학살에 관여하여,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였다.

그 후, 그는 젊은 엄마와 젖먹이 아기가 한 총탄에 맞아 죽은 비참한 광경이 떠오르는 잔상에 시달렸다. 그는 정글에서는 말도 안 되는 밀짚모자를 쓰기 시작했고, 이 밀짚모자가 그를 죽음으로 내몰길 바랐다. (3면으로 계속)



현실에서 느끼는 실존적 위협, 창조적인 생산으로 극복한다.

BBC, 실존주의 심리학에서 보는 불안 극복 대안 소개

최근에 나온 뉴스의 헤드라인들을 훑어봤다면, 당신은 꽤나 걱정스러웠을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전 세계에서 원숭이 두창이 발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위협적인 발언과 함께 핵전쟁 위기감을 고조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각처에서 발생한 극심한 기상 이변은 이제 기후 위기가 우리 눈앞의 현실임을 깨닫게 해준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이러한 소식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그 영향이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 방식으로도 이어질까? “실존주의 심리학”의 연구들의 답은 “그렇다”이다. 자신과 사회 앞에 놓인 위협을 걱정하다가,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쌓일 뿐만 아니라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음모론에도 쉽게 매혹된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나...2년새 우울 높아지고 행복 낮아졌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미약하지만 실존적 불안에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두려움과 불안을 창조적인 생산으로 연결해, 자신은 물론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The unsettling power of existential dread).

실존적 실존주의 심리학은 1980년대 후반 “공포 관리 이론”의 출현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이론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실존 위기,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룬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실존 위기로 인해 인간이 집단적 정체성이나 문화에 속하려 하고

그것을 통해 위안을 찾으려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더 크고 더 오래 지속되는 것(국적, 종교, 선호하는 정치적 입장 등)’의 일부로 자신을 생각할 때 삶의 의미를 찾고 죽음을 덜 두려워하게 된다고 본다. (16면으로 계속)

 시원 이동진 목사 3면	 푸른초장 김순관 목사 4면	 말씀과 땅 박성현 박사 8면
--	--	---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가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LA 호텔식숙
GUEST HOUSE
www.laguesthouse.com
965 Fedora St. L.A., CA 90006 | Email: laguesthouse@live.com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31)

읽고 쓰고 마음에 새기는

킹덤성경필사

말씀은 시간의 벽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만져 줍니다. 지친 날들에 은혜를 더해 새 힘을 얻게 하고, 상한 심령을 가만히 안아 줍니다. 말씀을 따라 한 구절 한 구절 쓰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과 은총을 마주하게 됩니다. 말씀이 주는 축복의 선물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이 생명이십니다.

주문안내
개인주문: www.hisfingermall.com
단체주문: info@chpress.net / 718-886-4400

Hisfinger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기독교문화출판사 히즈핑거

발행인 칼럼

역살 잡힌 이문세 씨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가수 이문세 씨를 좋아하시는가. 나는 좋아한다. 그의 노래도 좋아한다. 그의 노래 가운데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이란 노랫말을 담은 곡(曲)이 있다. 이렇게 시작된다. '라일락 꽃향기 맡으면/ 잊을 수 없는 기억에/ 햇살 가득 눈부신 슬픔안고/ 버스 창가에 기대 우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찬비 흘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바람에 지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애기/ 우 우~~~' 그는 크리스천이기도 하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 세상은 많은 아픔을 그 안에 담고 있지만, 그가 노래한 대로 세상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이다. 그런 그가 역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오래전 그가 대학로 콘서트에서 직접 들려주었다는 것이다.

그날 이문세 씨가 콘서트에 조금 늦게 도착했다고 한다. 청중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늦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 것이다. 오는 길에 어느 다정한 부부의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그런데 남편이 너무 잘생긴 것이었다. 그래서 그 부인에게 '저렇게 잘생긴 남편과 사시니까 행복하시겠어요'라고 덕담을 건넸다. 그때 갑자기 잘생긴 남편이 이문세 씨의 역살을 잡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문세 씨에게 이런 말을 쏟아부었다고 한다. '자기는 더 잘생겼으면서.....'

사실인지 유머인지 모르지만 나는 많이 웃었다. 이 이야기를 며칠 전 단풍이 물들어가는 공원에서 들었다. 내가 웃다 보니 단풍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다. 가을 하늘이 더욱 싱그러웠다. 다른 이들도 더욱 여유롭게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보니 우리는 웃음에 인생이다. 이 민자의 삶이 고달프고 이민교회를 섬김이 쉽지 않지만, 더 많이 웃어야 한다. 갓난아이를 울리려는 어른들은 아무도 없다. 그 아이를 함박 웃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 안 되면 간지럼이라도 태운다. 갓난아이가 웃는다면 그로 시작된 기쁨의 물결이 온 방 안에 번지고 또 퍼져 간다. 아버지가 집에서 웃으면 온 집안이 밝아진다. 웃는 자는 모든 가족을 위로한다. 어느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웃는 자가 아름답다. 웃는 자는 무기를 쓰지 않고도 이긴다.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 화려한 가방을 가졌다 하여도 싸늘한 얼굴 때문에 다 망친다. 추천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간혹 받곤 한다. 어떻게 써줄까 고민이 되는 적도 있다. 추천서에는 자기소개서도 필요하리라. 밝은 웃음을 가진 것이 가장 강력한 자기소개서가 아닐까.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한 것이 웃음이다.

이런 시는 삶의 고수(高手)가 지은 시가 아닐까. '남(南)으로 창(窓)을 내겠소/ 발이 한참같이 팽이로 파고/ 호미론 김을 매지오/ 구름이 꼬인다 갈 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병이가 익 걸랑 함께 와 자셔도 좋소/ 왜 사나건 웃지오' 소박하고 평범한 삶 속에 웃음의 향기가 짙게 배어 있다. 어려움이 올 때도 웃을 수 있다면 삶이 왜 힘들겠는가. 웃어야 한다. 웃을 수 있다. 이문세 씨의 잘생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혼자 생각해 보았다. '잘생긴 것이 죄라면 이문세 씨는 무기징역, 나는 사형(死刑)이겠네'

모든 것을 '밈'으로 만드는 세상, '의미'만들어야!

TGC, 밈이 되어버린 삶 속에서 크리스천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찰 제기

인스타그램을 별 생각 없이 스크롤하고 '반지의 제왕'(The Lord of the Rings, LOTR) 게시물 몇 개에 "좋아요"를 눌러놓고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라. 이제 내 피드에는 자연스럽게 LOTR 밈(memes)으로 넘칠 것이다. 되돌릴 방법은 없다.

"재미있거나 흥미로운 항목(예: 캡션이 있는 사진 또는 비디오) 또는 특히 소셜 미디어를 통해 온라인에 널리 퍼진 장르"라고 밈을 정의할 수 있다. 밈이라는 하위문화는 이상하고 종종 무섭기까지 하다. 단지 만화 캐릭터로 시작했던 눈이 튀어나온 녹색 개구리 페페(Pepe the Frog)는 결국 백인 우월주의의 상징으로 변했다. 그 어떤 사진도 어떻게 편집하는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하나의 원본 이미지 또는 비디오는 얼마든지 수천 개의 메시지를 위한 사료가 될 수 있다.

피터 바일스(Peter Biles)는 저널리스트, 에세이스트, 소설가로 모든 것이 "밈화"되는 세상이 얼마나 세상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활기찬 창조 세계와의 만남을 어떻게 둔감하게 만드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그는 밈 소재는 단지 영화와 쇼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구글에 "칼뱅주의 밈"(Calvinism memes) 또는 "침례교 밈"(Baptist memes)라고 쳐보라. 심지어 성경과 예수님조차도 밈을 통해 얼마든지 모자라고 나서 하나가 빠진 존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람에게 밈은 순수하고 재미있다. 그러나 밈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문제가 있다. 개구리 페페와 같이 사악한 예가 명백한 예이다. 그러나 내가 더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밈이 되어버린 삶(meme-ification)에 의해 조금씩 달라지는 미묘한 변화이다. 아이러니와 유머에 너무 중독되어 우리 눈에 세상이 마냥 농담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Meme-ing Ourselves to Death)

LOTR에서 찾는 밈 구절(The LOTR meme-verse)은 한동안 내 일상에서 단골 유머가 되었다. 인스타그램에서 "The Meme Havens"라는 LOTR 밈 계정도 시작했다. 다행히도 내 팔로워는 아직 12명을 넘지 않는다. 그 정도면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반지의 제왕을 다시 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반지의 제왕 속 모든 장면이 인스타그램 속 밈의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온라인에서 본 기발한 말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채 10분을 보낼 수 없을 지경이었다. 프로도가 반지 원정대에서 처음 간달프를 보았을 때, 소년 같고 천진난만한 그의 표정을 기억하는가? 그의 표정은 참으로 풍부한 밈의 소재가 되었다. 그 표정과 필적할 만한 것으로는 그리버스 장군을 향해서 오비완 케노비(Obi-Wan Kenobi)가 던진 상징적인 인사, "거기, 안녕하십니까?" 정도가 될 것이다. 일단 밈의 관점에서 파악하게 되면, 이제는 아무리 같은 장면을 봐도 결코 진지하게 대할 수 없게 된다.

LOTR은 놀라운 영화적 성취이다. 반지의 제왕을 보면서 울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나 이제는 경외감, 기쁨과 즐거움이 그만 밈으로 물들고 말았다. 이 걸작 영화가 그만 천 개의 밈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하나의 농담이라는, 위기에 봉착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로 밈을 만드는 것은 지금까지 별문제가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밈이라는 아이러니로 덮어버리는 건, 아름다움과 선함이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좋은 영향까지도 약화시킨다.

오피스(Office) 및 파크스 앤 레크리에이션(Parks and Recreation)과 같은 TV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시청자는 서로의 관계 때문에 드라마를 시청한다. 짐과 팸, 레슬리와 벤, 앤디와 에이프릴. 이런 드라마는 유머와 인간미의 균형을 보여준다. 진지한 관계와 진실한 순간은 시시껄렁한 농담이 침범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드라마 속 인물과 연결한다. "사실 모든 게 항상 농담이야"라는 유머가 재미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식의 대화는 결코 우리



를 풍요롭게 만들지 못한다.

내 아버지는 LOTR을 읽는 것을 추운 곳에서 몇 시간을 보낸 후 뜨거운 목욕을 하는 것에 비유하곤 했다. 그건 휴식, 회복, 그리고 치유의 행위이다. 책과 영화에서 내가 느꼈던 것이 바로 그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야기와 등장인물이 밈으로 바뀌는 순간, 뜨겁던 물이 미지근해진다. 여러 층의 아이러니는 쾌락보다 아름다움이, 패러디보다 진실이, 그리고 만족보다 선함이 필요하다는 사실마저 잊게 한다. C. S. 루이스는 친구이기도 했던 톨킨의 이 걸작을 놓고 이렇게 말했다. "여기 칼처럼 찌르거나 차가운 쇠처럼 타오르는 아름다움이 있다. 여기 당신의 마음을 부위버릴 놀라운 책이 있다."

아름다움이 없으면 마음은 굳어진다. 즐거움지는 몰라도, 더 이상 "깨지기 쉬운" 상태는 아니며, 더 이상 톨킨의 날카로운 말에도 녹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런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의 밈화(meme-ification)의 거저에 있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상실이다. 우리는 굳이 더 이상 객관적인 의미가 존재하는지 찾으려고 하지 않을지 모른다. 의미가 부과하는 무게에도, 또 서서히 드러나는 진실의 느린 복잡성에도 시간을 들이지 싶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는 모든 것을 무의미한 오락으로 축소한다. 그것을 성경의 용어로 표현하자면(렘 2:13), 우리는 물을 저장하지 않는 웅덩이를 파고 있으며 또한 내 영혼에 물주기를 거부하고 있다.

영국 철학자 고 로저 스크러튼(Roger Scruton)은 아름다움에 관한 책에서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아름다움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름다움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다. 그렇게 사는 이유는 우리가 희생의 습관을 잃어버렸고 항상 희생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이다. 신성 모독에 빠진 우리 시대의 거짓 예술은 그런 우리의 현실을 드러내는 표시 중 하나이다."

누구나 모든 것을 농담으로 바꾸는 사람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 대학에 가기 위해 집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다시 집에 갔을 때 나는 많이 우울한 상태였지만,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농담을 안 할 수는 없었다. 나는 소란스러웠고 또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이 관관다는 식으로 형들과 함께 계속해서 유머를 지껄었다.

그것은 상실감과 부서진 마음 그리고 향수병에 대처하는 나의 방법이었다. 또한 무의미함을 만회하려는 나의 방식이기도 했다.

(6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대표)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986-4400 (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3, July 4, and Nov 28,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Midwest University advertisement featuring a large image of the university campus, the text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and details about the School of Theology, degree programs, and contact information.

‘하나님의 밀수꾼’ ...

(1면에서 계속)

반 드 빌은 그곳의 경계를 바탕으로 “꼭꼭해지세요. 그렇지 않으면 미처 버릴 거예요.”라는 모토를 정했다.

그는 발목에 총상을 입었고, 회복 기간 동안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했던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네덜란드로 돌아온 후, 그는 의무적으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1950년 초 하나님께 항복했다.

반 드 빌은 “당시 제가 기도는 했지만, 믿음이 깊지는 않았습니니다. 단지 저는 ‘주님께서 제가 가야 할 길을 알려 주신다면, 저는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아멘’”이라고 말했다.

반 드 빌은 그의 삶을 선교 사역에 바치기로 헌신했고, 1953년 스코틀랜드로 건너가 WEC(Worldwide Evangelization Crusade)의 선교 훈련 학교에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2013년 ‘크리스체너티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한 구세군 장교로부터 받은 노방전도에 대한 수업이 결정적 가르침이었음을 회상했다. 연세 지긋하신 그 장교는 성경님이 앞으로 만날 1,000명 중 한 사람의 마음만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주신 반면, 대부분의 선교 지망생들은 너무 빨리 포기한다고 말했다.

“순간 제 마음에 반항심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냐.’고 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라고 반 드 빌은 회상했다. “왜 그곳까지 가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을 999명에게 에너지를 쓰야 하나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1,000명을 만난 후 저는 절망 가운데 포기했기에, 마귀는 웃습니다.”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예비된 나머지 한 사람에게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계산하고 전략을 짜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대신 성경의 인도를 따르기로 다짐했다.

얼마 지난 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3:2를 통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 있지만 막 죽어 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반 드 빌은 공산당이 장악한 나라들의 교회를 지원하려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1955년, 그는 폴란드 정부가 통제하는 여행을 통해 폴란드로 갔지만, 지하 교회 성도들을 방문하기 위해 여행 그룹에서 몰래 빠져나왔다. 두 번째 여행을 체코 슬로바키아로 간 그는, 공산주의 국가들의 교회들에 성경이 필요함을 보게 되었다.

반 드 빌은 후에 “나는 성경에 자주 손을 댈 수 있는 한, 이 성경을 사람이 세운 벽 뒤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져다 주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했습니다.”고 회상했다.

1957년, 그는 파란색 폭스바겐에 숨겨진 팸플릿, 성경 그리고 쪽 복음을

가지고 공산 국가의 국경을 넘어 유고슬라비아로 첫 번째 밀수 여행을 하였다. 국경 수비대가 자신의 면전에서 차를 수색하는 것을 보면서, 후에 “하나님의 밀수꾼의 기도”라 부르게 된 바로 그 기도를 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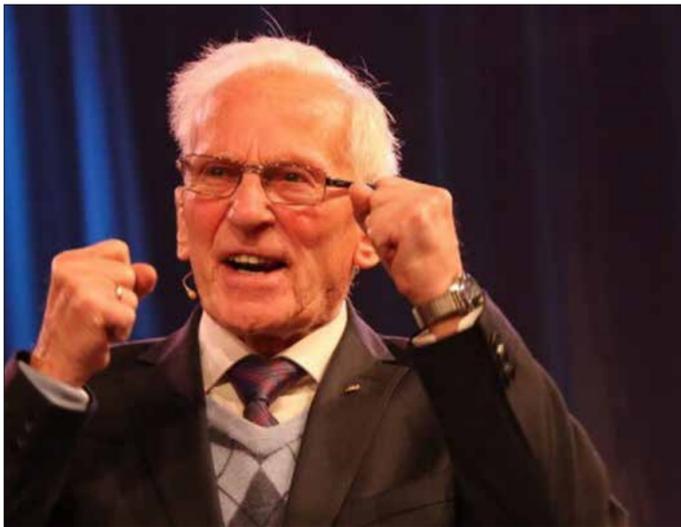
“주님, 제 짐 속에는 이 국경을 넘어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져다 주고 싶은 성경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은 눈먼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 눈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국경 수비대원들이 보지 않았으면 하는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반 드 빌은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초기 사역을 성공한 후 더 많이 방문했고, 결국에는 성경을 소련으로 밀반입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과 함께 사역하기 위한 크리스천들을 모집했고, 그들은 국경 수비대와 비밀 경찰의 주목

KGB가 반 드 빌의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그의 팀 내부에 정보원이 있을 것이라는 증거도 좀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밀수꾼이 성공한 후, 반 드 빌은 이 밀수 사역을 덜 유명한 다른 동역자들에게 맡겼다. 그는 오픈도 어선교회를 위한 기금 모금과 이슬람 국가에서의 사역 기회로 관심을 돌렸다. 미국이 2001년 아프가니스탄과 2003년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그는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에 대한 믿음을 포기했을 때 군사 개입을 신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2000년대 초 미국 청중들에게 설교할 때, 반 드 빌은 알 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



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했다. 때때로 밀수꾼들은 신혼부부로 위장하여 짝을 지어 여행했다. 때때로 그들은 외딴 국경 지역의 길이 아닌 루트를 이용하기도 했다. 그들은 자그마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차에 성경을 숨겨 운반하는 다양한 방법을 실험해왔다. 그들은 항상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랐고, 그 누구도 체포되지 않았다.

성경 밀수는 침례교 세계 연합, 남침례교 해외 선교 위원회 그리고 미국 성서 공회 등 많은 기독교 단체들에 의해 비판을 받았다. 그들은 이런 방법이 특히 공산주의 국가에 사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위험하며, 비효율적이라고 간주했다. 비평가들은 이런 놀라운 스토리들이 기금 마련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냉전 체제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은 성경 밀수가 공산주의 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해 왔다. 프란시스 D 라슈카는 그것이 “아마도 의미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증거는 허약하고, 과장된 면이 있으며, 개인적 입신출세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라슈카에 따르면,

했는지를 물었다. 2011년 미군이 빈 라덴을 살해했을 때, 그는 슬픔을 표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라고 믿습니다. 인간은 결코 적이 아닙니다. 마귀만이 적입니다.”라고 반 드 빌은 말했다. “빈 라덴은 제 기도 목록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누가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인지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가 사망할 당시, 반 드 빌이 설립한 사역은 60여개 국가의 기독교인들을 돕고 있었다. 오픈 도어스는 매년 성경 30만 권과 기독교 서적 150만 권, 양육 자료를 그리고 제자훈련 지침서를 배포하고 있다. 이 단체는 또한 전 세계의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변호하면서, 구호, 원조, 지역사회 개발, 트라우마 상담을 제공한다.

반 드 빌은 그의 평생 사역 가운데 후회하는 것이 없냐는 질문에 “만약 제가 제 삶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저는 훨씬 더 급진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다.



하나님의 공의(公儀)와 인간의 감사(感謝)로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감사라는 한자 단어는 다양한 뜻을 갖고 있다.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감사(感謝)가 있는가 하면, 일을 잘하고 있는가 조사하고 따져보는 감사(監査)도 있고, 자기가 싫으면 가지 않을 평양감사(監司)도 있다.

인류 역사가 늘 그랬지만 세계정세는 점점 더 흔들리고 있다. LA의 유가는 고공행진에 맛을 들인 듯 내려갈 줄을 모르고, 집 있는 사람도 렌트로 거주하는 사람도 모두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소식과 흔들리는 세계 경제를 개개인이 가정경제에서 피부로 체험하다 보니 사람들의 심리는 더욱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만 같다.

그러나, 어느 시대이든 성경은 광야, 골짜기, 전쟁, 기근 등을 통해 어둠의 세력이 존재하는 곳이 세상이라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빛은 사라진 적이 없으며 그 빛을 찾는 자들에 의해 회복과 소망의 힘이 역사를 이끌어왔음을 가르쳐주고 있다.

LA에서는 뜻깊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 워브릿지 컨퍼런스(We Bridge Conference), ‘예배회복과 선교적 삶으로의 결단’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모임은 ‘교회와 교회, 세대와 세대,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렸다. 목회자, 신학자들의 강연과 현장 목회자들의 간증들도 유익했지만, 이 모임이 감사한 근원적인 이유는 자립한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재정후원금을 만들어 미자립 교회(정한 기준이 있다)에 3년간 월 500달러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움직임이어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팬데믹 기간 동안 무너지고, 흩어진 크고 작은 교회들이 ‘사랑의 나눔으로 하나님을 확인하는 만남’을 모토로 모였기 때문이다.

재정을 후원하는 교회나 재정지원을 받는 교회는 상대가 누구인지 모른다. 오직 ‘We Bridge’라는 이름 안에서 모이고 나눔으로써 ‘하나’라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 한 두 대형교회가 이끌지도 않고, 어떤 연합단체가 이끌지도 않는다. 교회들이 서로 다리(bridge)가 되어 든든하게 서감으로써 나아가 이 시대, 이 세상에 선교적 교회로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에 다리가 되는’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이러한 모임에 참여하면서 ‘감사’라는 단어를 통해 다시 다짐해본다. 감사(監査)와 감사(感謝). 한국 국회는 국정감사(國政監査)가 진행되고 있다. 행정부가 하는 일을 자세히 살펴보고 점검하며 확인함으로써 바르게 사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국정감사이다. 거의 칭찬이나 격려는 없고, 인신공격이나 흠집내기 등으로 얼룩져 있지만,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필요한 장치이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이와 같은 감사(監査)이다. 하나님은 이 일을 ‘공의(公儀, Righteousness of God)’라고 부르시고 당신이 그 공의의 중심에 서 계신다. 그러므로 교계의 행사에 대한 감사(監査)는 숫자나 방법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마음에 대한 조사이다. 재정지원을 할 만해서 참여하는 자립한 교회나, 미자립상태로 지원받는 교회나 중요한 것은 이 공의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이 감사(感謝, thanksgiving)이다. 없으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많으면 감사를 버려 버린다면 교회가 하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어제 사과 농장을 갔다. 사과와 품종이 얼마나 많은지... 후지, 갈라, 골든달리셔스, 허니 크리스프 등 무려 수십 가지인데 입구 전시장에 열댓 종류의 사과를 시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맛이 다 다른데 다 맛있다. 감사는 어떤 상황, 어떤 때에도 아름다운 인생을 맛보게 해준다는 깨달음을 다양한 사과 품종들을 통해 얻고 돌아왔다.

이 시대, 한마디로 살기 힘들다.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公儀)와 인간의 감사(感謝)가 있는 한, 교회가 아무리 힘든 상황을 지나며 아픔처럼 ‘힘약한 인생’을 살아내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신 교회들이라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인정해주실 것이다.

djlee7777@gmail.com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위치한 미국장로교회(PCA) 소속 제일장로교회는 지난 46년동안 지역 사회의 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섬겨온 교회로서 확고한 개혁주의 신학의 바탕 위에서 바른 성경적 리더십과 복음적 열정으로 저희 교회를 이끌어 갈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요건

- 정규대학 및 PCA가 인정하는 신대원 (M.Div)졸업자 및 그 이상의 학력 소지자
- PCA 소속 목회자 및 PCA 교단 가입이 가능한 목회자
- 미국에서의 10년 이상 건장한 담임목회 사역 경험자
- 확고한 개혁주의 신학위에 성숙한 신앙 인품과 건장한 목회리더십을 가진 자
-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로 이중언어(한어/영어) 가능한 자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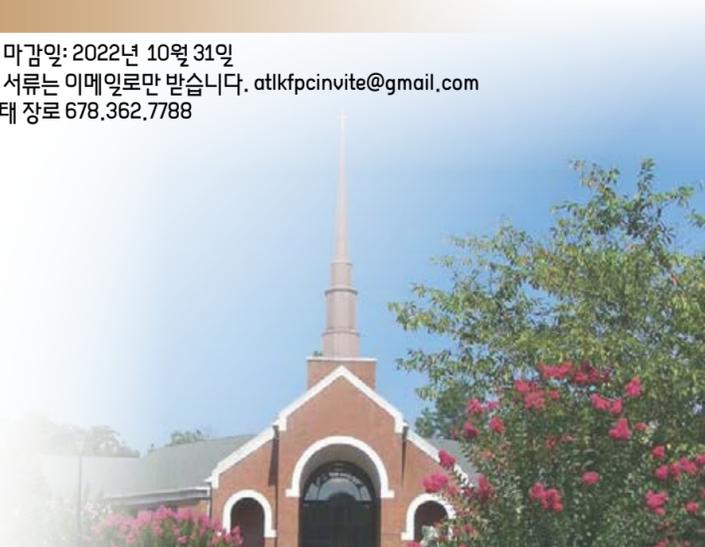
- 이력서(사진포함)
- 자기 소개서 "구원과 목사로서의 소명과 사명에 관련 내용" (한글과 영문)
- 대학(B.A.) 신대원(M.Div) 혹은 그 이상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 소속 교단 총회 혹은 노회 발행목사 안수 증명서
- 추천서 2부 (동료목회자 1부, 노회 혹은 신학기관 1부)
- 최근 설교 동영상 Link 또는 File E-mail (영어설교가 가능한 분은 영어설교 추가)
- 가족 소개 사진이나 동영상
- 목회 계획서

제출 및 문의

- 제출 마감일: 2022년 10월 31일
- 제출 서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atlkfpcininvite@gmail.com
- 전경태 장로 678.362.7788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6175 Lawrenceville Hwy, Tucker, GA 30084 www.kfpcchurch.com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럽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카페

로마에서 사람들이 가장 자주 찾는 곳이 카페입니다. 카페는 우리나라의 사랑방 같은 곳입니다. 거기를 가면 온 동네의 뉴스가 모여 있고, 마을 사람들의 모든 행사를 알게 됩니다. 이웃의 결혼, 출산, 죽음, 입원, 여행 등등 모든 소식이 모

이는 곳입니다. 우리같이 외국인들은 아파트의 어떤 부분을 손대어야 하는데, 해당 기술자를 찾기가 용이하지 않는데, 카페를 가면 대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도를 고치는 사람은 누구, 화장실을 손 볼 수 있는 사람은, 전기 기술자는 누구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서민들에게 편리한 곳입니다. 고로 로마에서는 카페 가격이 오르지 않아야 합니다. 서민들이 부담 없이 자주 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문에 의하면 원두 가격이 두 배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집 주변의 카페들이 슬금슬금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격에 민감한 서민들이기 때문에 혹 단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불안감이 있겠지만 손해를 보고 장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제정 시대부터 빵과 서커스를 공짜로 지급했던 도시입니다. 그런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도 공짜라면 무척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호수 주변에 탁자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휴일날 그 의자를 차지하기 위해 전날 밤부터 할머니가 그 의자에서 밤을 지새울 정도입니다. 그까짓 탁자가 뭐라고 말입니다. 우리로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 공짜 좋아하는 심리를 이용하여 복권이나 즉석 복권들이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보면 이태리는 넓은 땅(우리의 남북한 합친 것의 1.5배임, 거기다 경작면적은 7배)인데 왜 농사를 짓지 않고 이집트에서 밀을 수입하여 왔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노는 땅이 천지입니다. 아마도 정 안되면 콜로세움(얼마 전 신문에 4주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함)을 돈 많은 아랍 상인에게 넘기려 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콜로세움이 나폴리에도 있고 베로나에도 있으니

다 따진다면 십 몇조 되겠네요. 조상 잘 만나서 금수저를 물고 나왔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그런 전적이 있습니다. 콜사카를 불란서에 넘기기도 했고, 사보이 공국과 니스를 불란서에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전적이 있으니 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었지요. 아무튼 카페 가격이 오르는 것은 로마 서민들에게는 매우 불안하게 하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처럼 걸쭉하면 휴양지로 떠날 수도 없고, 기껏해야 동네 카페를 찾아가오를 잡으려고 할 때, 순도 50도에 이르는 독주를 컵에 몇 방울 떨어뜨려 달라는 정도의 객기를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정 로마 시절처럼 공짜 서커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

짜 빵을 주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자신의 객기를 부릴 수 있는 유일한 카페, 그 카페 가격이 올라 저들의 작은 자존심이 밟혀버린다면 저들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왜 신은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게 하셨고, 부유한 자는 적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반대라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튼 서민들의 유일한 안식처인 카페, 그 카페 가격이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민들에게도 유일하게 가끔씩 가오를 잡을 수 있는 곳이니깐요. 모든 사람들의 연인인 카페. 그 카페가 서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때로는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라면 좋겠네요.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김순관 목사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



세계적인 발명가인 에디슨은 일생동안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등을 만들었고 전화를 발명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가 영화를 볼 때 필름을 돌려주는 영사기를 만들고 축음기를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CD로 음악을 듣거나 컴퓨터를 통해 듣고 있지만 전에는 유성기라고 불렀던 전축을 통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었는데 바로 그 전축의 발명자가 에디슨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문명의 기기들을 발명하여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준 에디슨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무려 1093가지 종류의 발명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발명품을 만든 에디슨이 말하기를 “천재는 99%의 탐과 1%의 지능으로 태어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흔히 천재라고 하면 머리가 좋은 사람을 뜻하지만 이러한 천재들이라고 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타고난 천재라고 해도 정해진 목표를 향해 집중력을 가지고 끊임없는 열정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에디슨도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의 발명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그 실패를 거울삼아 다시 연구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 세상에 수많은 발명품을 내놓았으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우리의 부모로부터 기독교적인 신앙을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없으며 참된 크리스천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우리의 부모로부터 기독교적인 신앙을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없으며 참된 크리스천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좌절하여 슬픔에 빠지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신의 초라한 능력 때문에 불안하고 근심과 염려에 쌓여 지내다가 마침내는 영영 그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아

닙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향하신 우리 주님의 당부인 것입니다. 끈기 있게 부단히 드리는 기도는 꼭 어려운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야말로 우리들 자신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한 이봉주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전에도 국제 경기에서 마라톤 종목으로 우승을 했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랫동안 슬럼프에 빠져서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훈련에 훈련을 거듭한 결과 또다시 우승의 영예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운동선수들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실패와 좌절은 찾아올

은 자기에게 유익하고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혹시라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일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암담한 상태에서도 오히려 박찬 감격과 기쁨으로 감사의 찬송을 힘차게 불렀습니다. 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결코 어떠한 단서나 조건이 붙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일본의 유명한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감사는 효과있는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중략)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

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의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고 나머지 아홉 사람은 자기들의 목격지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온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병을 고쳐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와 같이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길로 가버린 아홉 명의 문둥병자와 같은 신앙인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마침내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제대로 감사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줄 모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앙인이어야 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16-18

있습니다. 또 항상 근심과 염려에 쌓여서 도무지 기뻐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제 힘으로 살 것만 하고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제 뜻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도하는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어떤 농구선수가 시합에 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리바운드와 패스나 잘해주십시오. 골인 제가 쏠겠습니다. 골인이 되면 그것은 화려한 제 솜씨 때문이고 만일 골인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패스나 리바운드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니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비록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채 우리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모두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근심과 염려를 잊고 불안이나 좌절, 그리고 실패도 겪지 않으며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는 실패가 있고 좌절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는 결코 실패와 좌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에는 언제나 넘치는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도 모범적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의 훈련을 쌓아가야만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집단적인 신앙이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나 가족의 믿음은 각자의 믿음이지 가족 전체의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믿는다고 해도 내가 교회에 안가거나 믿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가 권력가라도 자녀가 반드시 권력가가 아닐 수 있는 것처럼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내 신앙이 반드시 좋을 수 없으며 가족의 신앙이 좋다고 그 가족 구성원 전부가 다 같은 신앙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자신을 위한 신앙의 훈련을 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늘 불만투성이고 계속해서 원망을 늘어놓으며 언제나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에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제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제대로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아래에는 예수님께서 열 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하시기를 “어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규례로 문둥병이 걸렸던 사람이 병이 다 나게 되면 제사장에게 먼저 보이고 확인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에게 보내신 것은 이미 그들의 병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전제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시하신대로 열 명의 문둥병자들은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는데 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병이 다 나은 것을 알게 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 사람에게 아무런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물론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은혜를 베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은혜를 베풀 사람에게 감사하는 표시를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무런 감사의 표시도 받지 못했을 때에는 약간의 서운함이 남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제 갈길로 가버린 아홉 사람으로 인하여 서운함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방을 물으셨다고도 짐작해 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원하시는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soongwan88@gmail.com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심령에는 시대의 징조를 알며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 깨어 있게 되는 것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특정한 일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무슨 일에도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특정한 일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무슨 일에도 감사하라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을 태아살인의 도구로 사용한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에게 보내는 편지!

최근 텍사스 어스틴에서 수많은 차량들이 지나는 Freeway에 올려진 큰 빌보드에는 한 여성이 무릎 위에 팔짱을 낀 채 앉아 아랫글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고민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담았다고 폭스 7 오스틴 뉴스가 일요일 보도했습니다. "낙태가 필요합니까? 캘리포니아는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텍사스 어스틴(Austin, TX) 에 게빈뉴섬이 올린 빌보드(Billboard) 캠페인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막 12:31)

텍사스뿐 아니라 인디애나, 미시시피, 오클라호마,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등등 주로 미 중부를 겨냥하여 올려진 빌보드 광고판에는 "인디애나 주/ South 다코타 주는 당신의 몸을 소유하지 않는다. (당신의 몸은) 당신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있다.

게빈 뉴섬이 새롭게 만든 캘리포니아의 낙태 전용 웹사이트인 abortion.ca.gov 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모든 빌보드 광고 캠페인들은 돈을 주고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의 세금) 하는 것인데 왜 게빈 뉴섬은 이런 캠페인에 돈을 주면서 하고 있을까요?

첫째, 게빈 뉴섬은 말기낙태뿐 아니라, 갓 태어난 갓난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허락하는 경찰조사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법 AB2223에도 9월 27일 사인하여 서명하는 강력한 Pro-Choice (낙태지지) 운동 정치인입니다.

둘째, 게빈 뉴섬 주지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그 행정부의 "말기낙태 정책(Policy)들"을 강력히 지지하는 사람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말기낙태"를 반대하고 "태아/어린이 생명 보호"를 위한 법안들을 미중부에 있는 주들이 통과시키자 거기에 맞서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낙태 위원회"를 만들고 "캘리포니아를 낙태 천국, 낙태 Sanctuary"로 만들겠다고 선포한 주지사입니다.

셋째, 그는 미중부에 있는 주들이 주로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투표하는 시민들을 고려하여, 마가복음 12:31 성경 구절까지 동원하여 다른 주 사람들의 마음을 사보려고 한 것입니다.

참고로, 게빈뉴섬은 캘리포니아 민주당 소속 주지사로서 이번에 재선에 도전할 뿐 아니라, 낸시 펠로시 (민주당 대표)의 조카로서 다음 미국 대통령으로 나갈 준비를 한다는 것 역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런 게빈뉴섬 주지사의 언행에 존 맥 아더 목사님이 오픈편지를 쓰신 것을 부

분적으로 번역하여 나눕니다. 전체 편지는 Tvnext.org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게빈 주지사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잠언 14:34)

성경은 또한 시민의 지도자가 가진 으뜸이 되는 의무는 선한 일을 행한 이들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자들은 벌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1-7)

하지만, 당신은 그 책임을 완수하는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의로운 시민들을 벌하고 악인들에게 상을 내리는 것을 행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0)

그리고, 당신의 맑은 정책들은 불경건하고, 명예와 도덕에 대한 관점들이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게빈뉴섬 당신 세계관의 사악한 영향으로 캘리포니아의 전례가 없는 범죄, 홀리스, 동성애나 성전환과 같은 성적 도착(perversion) 그리고 비참해진 사람들의 모습 등이 각종 통계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성경 말씀은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진리이며 당신의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5-6)

- 줄임 -

지난 9월 중순쯤에 당신은 미국 전역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은 태아를

학살하고자 하는 대형 광고판 제작에 자금을 후원하며 당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자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살인 조장 캠페인의 악함에 더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12:31을 인용하면서 용서받지 못할 역겨운 신성 모독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어나지 않은 유아를 도륙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예수님 말씀의 의미와 그분의 이름까지 사칭한 것입니다.

당신은 구약 성경 레위기 20:1-5에 나오는 몰렉신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쳤던 악행을 홍보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이보다 더 심한 신성 모독은 없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당신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언급하신 대제명인 다음의 마가복음 말씀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마가복음 12:30)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태아 살인에 동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편 50:16-19은 자신들의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울레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독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내어 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 줄임 -

뉴섬 주지사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린도후서 6:2)

전체 편지 내용은 Tvnext.org 에서 보세요.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 749-0577
TLspc0316@gmail.com

Q: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리스도인의 소명과 사명이란 말을 자주 쓰시는데 소명과 사명은 어떻게 다른지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대의 소명자요 사명자라 할 수 있는지요?

- 휴스턴에서 KIM

A: 소명이란 말은 왕이나 혹은 하나님으로 부터 어떤 사명으로의 부름을 의미하는 말로서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하고 Divine Calling(신적 소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옛날 왕에게서 어떤 일을 맡아 달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임금님의 소명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부른 왕의 권위가 지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명을 받은 자는 그 부름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소명에는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20살에 대학생 때에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의 신적 소명을 받아 사당동 총신으로 편입학을 하게 되고 만 25살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힘들고 거친 길이지만 소명에 순종했을 때 엄청난 기쁨과 보람도 많았습니다.

사명이란 말은 소명과 함께 따라다니는 말로서 소명과 부름이 비슷하지만, 내용이 전혀 다른 것으로서 소명을 받은 자가 당연히 가져야 할 의무나 책임을 말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어떤 과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영어로 Mission이라고 부릅니다. 소명은 부름이요 사명은 소명 받은 자의 과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

소명, 부르심이요 사명, 소명 받은 자의 과업 모든 그리스도인들 부름받은 소명자, 사명자

니다. 그러므로 소명없이 사명없고 사명감이 없는 자는 당연히 소명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흔히 쓰이는 단어 중에 직업을 나타내는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남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종교적인 유래가 있는데 과거 수도사들이나 사제들은 자신들이 신의 은총을 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신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르다에 해당하는 라틴어가 Vocatio 인데 여기서 Vocation 이란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직업으로 남을 섬기라고 부름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목사나 전도사만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반 직업인들도 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을 통해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보통 목사나 신부를 성직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성직자라기보다 목회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 평신도들도 각자의 직업을 통해 남을 섬기는 소명을 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크(---로 부터) 와 칼레오 (부름을 받다) 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죄악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넓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받은 자들에게 은사를 따라 각자의 직업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자에게는 오직 충성만이 있을 뿐입니다. "말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고전 4:2)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 부름을 받은 소명자요 사명자입니다.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제8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2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8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타임즈(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 저널(사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복음사 562-865-4949
도르가 서점 714-636-7430

추천 도서



하나님을 말하다 린 켈러 두란노
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김성경, 토기장이
먹다 듣다 걷다 이어령 두란노
내 마음도 설곳이 필요해요 유은정 규장
한달란트 박성현 두란노
꽤 괜찮은 해피엔딩 이지선 문학동네

주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이영선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기도/칼럼



박현숙 목사 (토론토 서부장교교회)

사랑함과 좋아함

메모장을 보다가 눈길이 멈추었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 좋아하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 차이점은 좋아하는 것은 감정의 차원이고 사랑하는 것은 삶의 차원이다. 좋아하는 감정은 고통이 오면 떠나지만, 사랑은 고통이 오면 껴안는다. 어느 책을 읽다가 적어 놓은 것인데, 다시 읽어보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특히 "사랑은 고통이 오면 껴안는다."라는 말에 가슴이 찡하며 뭉클했습니다. 고난은 사랑의 시금석입니다. 평소에는 모릅시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탄할 때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러나 막상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에 직면하면 그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사랑했던 것이 그냥 감정이었는지 아니면 진실한 것이었는지 밝혀지게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는가, 사랑하는가? 나는 교회를 좋아하는가, 사랑하는가? 나는 맡은 바 일을 좋아하는가, 사랑하는가?" 자신을 점검해보았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나의 사명을

사랑하며 충성을 다 할 수 있는가?" 자문자답하며 사랑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별개가 될 수 있지만, 또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좋아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감정에서 끝나지만, 사랑하고 좋아하면 상대방 중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은 나를 집집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노래하며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좋아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마음을 살피며 다짐해봅니다. "사랑하며 좋아하라. 사랑 없이는 좋아하지 않으리라. 사랑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여, 주님이 그러하시듯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하소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베드로전서 1:8)

bible66@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유엔, 러 규탄 결의안 논의 착수

미국 등 서방 동맹은 러시아의 대규모 보복 공격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유엔은 긴급특별총회를 소집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불법적 병합 시도를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 논의를 시작했다.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사일 공격으로 민간인이 숨지고 다쳤으며 군사 용도가 없는 표적이 파괴됐다"며 "푸틴이 우크라이나 국민을 상대로 시작한 불법 전쟁의 잔인함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 공격은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우크라이나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더 강화할 뿐"이라며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와 함께 계속해서 푸틴과 러시아가 전쟁 범죄에 대해 책임지게 하며, 우크라이나군이 조국과 자유를 지키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도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명하고, 첨단 방공시스템 등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통화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유엔은 이날 긴급특별총회를 열고 유럽연합(EU) 주도로 마련된 규탄 결의안 논의를 시작했다. 총회 의장을 맡은 차바 코로시 헝가리 대사는 "UN 헌장은 명확하다. 이웃 국가를 침범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결의안에는 러시아가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케르손 등 우크라이나 4개 지역에서 실시한 주민투표를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병합 선언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지난달 30일 비슷한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논의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채택되지 못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이날 총회에서 결의안에 대한 비밀투표를 요구했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이를 거부하고 공개 투표를 12일 실시하기로 했다. 결의안에 대한 공개투표 안건은 찬성 107표, 반대 13표, 기권 39표로 가결됐다. 러시아와 중국 등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실상 결의안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공개투표 찬성표를 던진 것이어서 규탄 결의안 채택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노벨상 수상자 버냉키 "... 세계적 사건 주의해야"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달러 강세에 따른 환율 불안 등을 언급하며 금융상황에



벤 버냉키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럽에서는 천연가스 공급 중단으로 금융 기관이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아시아 등) 신흥시장은 매우 강한 달러로 대규모 자본 유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 문제가 하나의 사건으로 시작되진 않더라도, 해당 상황이 금융 여건을 악화시키면 문제를 심화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미국의 금융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개선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금융위기의 원인은 부실대출이라는 금융 시스템 내부의 문제이지만, 현재 경제 위기는 코로나19 사태라는 외부 요인에서 출발했다며 "(현재 경제 상황은) 14년 전처럼 심각한 곤경에 처해있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럽, 아시아 등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 재정 문제를 일으키면 미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버냉키 전 의장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강력한 긴축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매우 어려운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준을 향해 "인플레이션 목표는 중기 목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6개월 이내에 충족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미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올라 연준 목표치인 2%를 18개월째 웃돌았다. 연준은 이를 낮추기 위해 고강도 금리 인상을 추가 단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학 교수도 별도 기자회견에서 "정교하게 조직된 금융 시스템이라도 공포 자체에는 취약하다"며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시장의 공포 확산을 막기 위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끊임없이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큰 폭의 금리 인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연준의 긴축 등이 경기 침체의 잠재적 지표"라며 "미국과 세계 경제를 압박하는 심각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은 이미 경기 침체에 빠진 상태"라며 "이는 미국을 향후 6-9개월 내 경기 침체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천리 해커 집단, 미 공방 웹사이트 12곳 이상 디도스 공격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내 대형 공방 12곳 이상의 웹사이트가 친(親)러시아 성향 해커 공격을 받아 운영이 일시 중단됐다.



킬넷(Killnet) 해커 집단

미국 ABC방송은 10일(현지시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공방의 웹사이트가 이날 분산 서비스 거부(DDoS·디도스)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웹사이트 운

영이 중단됐지만, 비행기의 이착륙 등 항공관제와 공항 내 보안 시스템은 해킹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킹 공격 피해는 이날 오후 3시쯤(동부시간)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시작했다. 이어 아이오와주(州) 디모인 국제공항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시카고 오페어 국제공항이 잇따라 공격에 노출됐다.

미 국토안보부 사이버안보·인프라 보안국(CISA)은 "공방 웹사이트를 겨냥한 디도스 공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피해 당사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은 성명을 통해 "공항 웹사이트의 운영이 부분적으로 중단됐지만, 공항 시스템이나 항공관제 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범인은 천리 해커 그룹 '킬넷'(Killnet)으로 지목됐다. 킬넷은 이날 텔레그램 채널에서 자신들이 해킹 공격을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힘을 합쳐 미국 공방을 무너뜨리자"고 다른 해커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글로벌 보안기업 체크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킬넷은 지난주 정부 웹사이트 15곳에 대한 해킹을 시도했다.

전문가들은 킬넷 등 천리 해커들이 러시아군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킬넷은 지난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활동을 시작했고, 지난달까지 7개월여간 550건 이상의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체크포인트는 "처음에는 우크라이나에 공격 초점을 맞췄지만, 이후 미국과 동유럽과 일본 등 서방으로 옮겨졌다"며 "러시아에 부정적인 표적에 공격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킬넷은 지난달 미국의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의 네트워크를 공격했고, 고릴라 서킷 네트워크에 침투했다는 주장을 폈다.

트러스 집권 한 달 만에 英 경제 추락, 세계 GDP 6위로

리자 트러스 총리가 집권한지 한 달여 만에 영국경제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 경기 침체에 금리와 물가의 동반 급등으로 영국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이후 2년여만에 모든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리자 트러스

경제전문 블룸버그통신은 9일(현지시간)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순위 5위였던 영국이 과거 식민지였던 인도에 밀려나 6위로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파운드화는 영국정부의 헛발질에 계속 곤두박질쳐 지난달 26일에는 미국 달러 대비 환율이 1.03달러로 급락해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이처럼 영국이 초유의 경제위기에 내몰린 것은 트러스 총리가 접화했다가 시장의 거센 반발로 철위한 감세정책 논란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50년만의 최대 감세정책을 발표했지만, 재원 마련이 미비해 세계 금융시장에 혼돈만 야기했다. 나랏빚을 늘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발표를 하자, 채권시장에서 영국 국제금리가 급등(채권 가격 급락)했고, 다시 주식·외환 등의 금융시장 전반에 연쇄반응을 일으켰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이 직접 나서 감세정책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영국의 물가 상승률은 현재 10%로 G7 중 가장 높고, 3분기 성장률도 0.2%로 간신히 마이너스 성장을 피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의 성장 동력은 약한데 물가만 가파르게 오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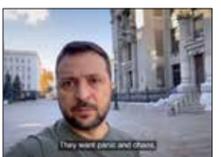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렸더니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기준금리를 올려온 영란은행(BOE)은 다음달엔 3.25%까지 올릴 개연성이 높다.

물가와 에너지난에 영국 기업들은 속속 문을 닫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5일 영국 기업들이 줄줄이 폐업해 상반기에만 25만 개가 넘는 기업이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

임금이 물가를 쫓아가지 못하자 공공부문과 기업 움직임도 줄을 잇는다. 영국 15개 철도회사와 철도시설공단은 올해 들어서만 11번째 파업을 했다.

"오직 전진할 뿐" ... 젤렌스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미사일 보복 공격에 맞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인이다. 우리는 전진한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나와 야외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밝혔다. 러시아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여주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이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배포한 연설 영상 상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격이 시작된 이날 아침 집무실 근처의 한 넓은 광장에 서서 트레이드 마크로 알려진 국방색 티셔츠를 입은 체셀프 카메라로 1분26초간의 대국민 메시지를 직접 녹화했다.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단호하게 연설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침은 고달프다. 우리는 테러리스트를 상대하고 있다"고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해 "그들(러시아)의 목표물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전국의 에너지 시설"이라며 키이우, 크멜니츠키, 르비우, 드니프로 등 총 12개 지역이 이날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목표는 사람들"이라며 "(공격) 시기와 목표는 가능한 한 큰 피해를 입히기 위해 특별히 선택되었다"고 러시아를 맹비난했다. 실제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출근 시간대인 오전 8시 전후 각 지역 도심과 기간시설을 향해 이뤄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는 우크라이나인이다. 우리는 서로를 돕고, 우리 자신을 믿는다. 우리는 파괴된 모든 것을 복구한다"면서 "이제 정전이 있을 수 있지만, 승리에 대한 우리 자신감의 단절은 없을 것"이라고 대항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런 공습을 정확히 왜 하겠느냐"며 "적들은 우리가 두려워하기를, 사람들이 달아나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전진만 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전장에서 보여준다. 계속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피신처에 계속 머물러 달라. 우리 군 덕분에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다. 언제나 안전 규칙을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영상 연설에 앞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도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공습경보가 찾아들지 않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지구 위에서 쓸어버리려 한다"고 러시아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초기에도 대통령과 측근들이 키이우를 탈출했다는 루머가 퍼지자 피격 위험을 감수하고 키이우 정부청사 앞에서 영상을 촬영해 소문을 잠재운 적이 있다.

모든 것을 '믿' 으로 만드는 세상...

(2면에서 계속) 대학에서 보낸 4년 중 3년 동안 진짜로 웃은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얌은 유머에 빠진 나는 울고, 애도하고, 또 희생해야 할 때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유머가 나 자신과 사물 속 진실 사이를 갈라놓는 완충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경험을 통해 너무도 잘 안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문학과 예술 작품을 심도 있게 접한 후, 나는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믿이 아니라 의미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셜미디어 피드에서 웃을 수 있는 일회용 농담이 아니라, 인생을 걸고 추구할 초월적인 목적(telos)이다. 스크롤할

사진(GIF)과 리트윗할 뭉뚱 아니라, 우리에게는 지켜내야 할 곤드르뿐 아니라 싸워야 할 적, 모르도르까지 필요하다.

믿을 바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제대로만 사용되면, 믿음은 최고의 풍자와 진정된 창의성이라는 긍정적인 출구를 제공한다. 내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은 Obi-Wan Kenobi라는 스타워즈 밈 계정을 성공적으

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이 세상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활기찬 창조 세계와의 만남을 어떻게 둔감하게 만드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톨킨처럼 가톨릭 신자였던 체스터턴(G. K. Chesterton)은 "감사는 경이로움 때문에 두 배가 되는 행복"이라고 썼다.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를 목상할 때

우리 안에서 경이로움과 감사가 자라는 것처럼, LOTR을 읽은 후 우리 안에 남아야 하는 것도 경이로움과 감사가 되어야 한다.

지나친 아이러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 안에서 살고 있다는, 이 삶의 중대함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 풍자는 신성함을 보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다 명확하고 덜 냉소적으

로 보는 눈을 가질 때, "왕의 귀환" 마지막 장면 속 프로도처럼 우리도 우리를 기다리는 천국의 끝자락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희생 장막이 온통 은빛 유리로 변하니 뒤로 젖혀졌다. 그는 하얀 해안과 빠른 일출 아래로 멀리 푸른 나라를 보았다."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56. 차운중

차운중(車允中)은 미국 꿈을 품고 1900년 초에 노동 이민자로 하와이에 입국하였는데 입국 명단에 차씨 성을 가진 30여 명 중에 Cha Yoon Choong은 없었으므로 중국 당시 그의 이름은 달리 표기한 듯하다.

하와이 선교연회 감독 에드윈 B. 휴즈 박사와 존 W. 와드만 감리사의 소집으로 1910년 3월에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제일감리교회에서 하와이 선교부 제5차 연회가 모였다. 한국인 준회원(집사 목사)에 민찬오, 이경직, 홍지범, 김사S 그리고 김유순이 있었다. 하와이 선교부는 가와이섬에 있는 막가웰리에 거주하는 한인 선교를 위하여 김이제를 목사로 파송하면서 차운중을 평신도 설교자(전도사)로서 파송했고, 이 지역에 정인S와 남새Y를 권사로 임명했다. 1910년 연회록에서 그가 파송 받던 그달의 본 교회 통계를 볼 수 있다. 세계의 예배당이 있었는데 학습 교인이 50명이었고, 세례 교인은 103명이었으며, 시니어 센터에 44명이 등록했다. 주일 학교가 다섯 곳에 있었고, 등록한 학생은 적막이와 아기까지 합하면 133명이었으며 교직원인 14명이었다. 세 예배당의 시가는 700달러에 해당했다.

아래에 열거한 1910년 인구조사에 응한 한인 중 다수가 막가웰리 교회 교인이었을 것이다. 음진우(29세), 이준사(38세), 이상중(28세), 김사훈(32세), 이중담(30세), 박봉현(29세), 박K흠(37세), 노수몽(27세), 강대춘(26세), 강계양(32세), 최경욱(35세), 박원근(29세), 연신문(33세), 김준일(32세), 안충현(29세), 장경식(29세), 박기실(27세), 이한식(29세), 김봉열(35세), 이박용(31세), 박성달(26세), 박순김(35세), 양성학(32세), 강경완(63세), 이덕아(54세), 이방서(44세), 최순방(31세), 김홍욱(28세), 오상완(30세), 김인용(28세), 강장에(26세), 우장완(24세), 김덕수(30세), 이춘수(32세), 김완서(30세), 오동국(61세), 이근조(28세), 김중학(34세), 김덕구(38세), 유용분(28세), 유달봉(19세), 이명섭(31세), 김영순(38세), 김준우(30세), 김경진(28세), 김순옥(33세), 김영일(53세), 최원준(31세), 이만엽(25세), 문순

서(35세), 박 문(32세), 이관목(30세), 김동기(44세), 김중완(30세), 문 철(30세), 홍형화(31세), 여준삼(37세), 홍재봉(37세), 왕응식(40세), 김용석(26세), 전우김(26세), 함신엽(38세), 한경선(27세), 장정박(29세), 최원순(29세), 장순박(32세), 장 식(36세), 연영환(27세), 박규신(31세), 강규항(31세), 이만보(35세), 이운상(14세), 김문엽(44세), 추경도(45세), 조지주(50세), 김현구(31세), 양기완(31세), 김순파(26세)는 독신이거나 홀아비였다. 이들 80여 명에 가까운 한인들은 거의 2, 30대였고, 진감을 지낸 노인도 있었고, 14세 된 앳된 소년도 있었다.

그리고 막가웰리에는 가정을 가진 한

나감(18세)이 있었는데 모두 14가정이었다. 이들 가정 중에는 단출한 가정도 있었지만, 부모를 모시거나 처제와 함께 사는 가정도 있었고, 부인이 없이 자녀만 있는 가정도 있었고, 62세의 가장이 있었는데 21세의 가장도 있었다. 막가웰리에서 인구조사에 응한 1,688명 중 한국인은 극소수였다.

1910년 3월부터 1911년 1월까지 1년간 1명이 유아세례를 받았고, 15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1911년 1월에 본 교회에는 85명의 세례 교인과 45명의 학습 교인이 제적됐고, 시니어 센터가 한 개 있었는데 25명이 등록했다. 지난해와 같이 막가웰리 지역에 예배당이 세 개가 있었고 시가는 700달러에 해당했다. 지난 1년간 본 교회는 33달러를 선교부에 헌금했는데 내지선교부와 교회확장을 위하여 30달러, 주일학교부를 위하여 1달러, 흑인 보조회를 위하여 1달러 그리고 미국 성서공회를 위하여 1달러로 '나누는' 교회였다. 그런데 지난 1년간 2명이 사망하는 슬픔도 있었다.

1911년 1월에 제6회 하와이 선교부 연회가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제일감리교회에서 모였다. 그해 감독은 에드윈 H. 휴즈 박사였고, 감리사는 여전히 와드만 박사였다. 차운중은 하와이 선교부로부터 평신도 설교자로 가와이 섬에 있는 막가웰리 한인감리교회로 다시 파송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해에 파송한 김이제 목사가 다시 파송되었는데 김 목사는 막가웰리 지방뿐만 아니라

의 연회 관계위원회 3명 중 2명의 일본인 목사는 한국인에 대하여 선한 마음을 가진 자로 보인다.

1918년에 폐년 하와이 선교부 연회록에는 차운중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으므로 그는 8년간 선교사역을 감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신한민보에서 볼 수 있다. 신한민보에서 찾은 그의 이름은 나라 사랑에서 또렷했다. 그해에 교육과 실업을 진발하고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며 조국 광복을 원조한다는 목적을 가진 국민회에 국민 의무금으로 5달러를 냈다. 이듬해에는 그가 두 차례나 특별 의연을 하였는데 각각 5달러와 10달러를 냈으며, 특별 의연뿐만 아니라 적십자회에 3달러를 냈다. 1920년에도 국민 의무금으로 5달러를 냈고, 이듬해에도 국민 의무금으로 5달러를 냈으며, 1922년에도 5달러를 냈고, 1923년에도 국민 의무금으로 10달러를 냈고, 1932년에는 인구세로 1달러를 냈고, 1942년에는 하와이를 제외한 북미에 유일한 한글 신문인 신한민보 신문 대금으로 10달러를 기부했다.

차운중은 1923년에 8월에 신한 등과 함께 민립대학 기성회 후원회원에 가입하고 황보정걸 등과 함께 후원회금을 냈는데 그 액수는 보도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듬해 2월에 "민립대학 기성회 후원회"라는 제하의 기고문이 신한민보에 다음과 같이 게재되었다. "민립대학 기성회 후원회를 발기한 지 오렸으나



인 경애, 김병규, 송헌두, 장수영, 김원택, 김 부인 원도, 김용정, 장인환, 김승제, 신달원, 황보정걸, 한백선, 신윤국, 차운중, 김형식, 박용성, 허승원, 송상대, 박귀호, 김원호, 이영수, 최진하, 오창훈 가운데 선정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에 "제2식을 원하시는 이는... 후원회 조직 방식을 분명히 기록하여 보내되 기한은 3월 말로 한정할 일."이라고 썼다. 그 후 백일규(31표), 최진하(30표), 장인화(27표), 황보정걸(19표), 최용선(17표), 정철래(14표), 최능익(14표), 이영수(12표), 신윤국(11표)이 평의원으로 선임되었고, 차운중은 1표를 받아 평의원에 선임되지 못했다.

힐로 국민회 개설을 제안하는 자가 40명에 달하여 표상옥과 함께 차운중이 주선하여 1925년 3월에 다수 동포가 모여 임시 국민회라 명칭하고 회장에 차운중을 선출하였다. 그해 6월에 차운중은 신한민보에 임시 국민회의 세 가지 목적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만사 일생의 유일한 활로가 단합에 있는 줄 확신하는 우리가 아무 기관이 없이 거의 1년을 지내왔습니다. 이 어찌 유감이나 아니옵니까. 그동안 여러분 비분강개하심과 노심초사하심으로 응당 대동단결의 슬만한 재료를 많이 저축하였을 줄 믿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열심 되어 여러분의 반복 경음인 보기를 열어젖히고 그 좋은 의향을 다 집어내 볼까 하는 본의에서 발기하는 것이 올시다. 그런 이유에서 몇 조목을 첨부 하오며 몇 줄로 문까지 기록하였습니다. 1. 이미 성립된 마위와 임시로 성립된 힐노에 의향을 받아 호환에 임시 교동 기관이 설립되기를 요하겠습니다. 2. 호환에서 시시 기관이 전에 무슨 의향을 발표하고자 하시면 본회에서 가급적 수용하겠사오며, 3. 국민회로 회명을 한 것은 역사적임과 통일적임을 적용한 것뿐이고, 더 좋은 회명이 공결되면 복종하겠고, 만일 교민단 아래라도 모이자하면 더욱 열심 총중하겠습니다. 미국 7년 4월 10일."

1944년에 연합위원회를 상설 기관으로 인정하고 각 단체 대표원이 연합위원회에 참가하기로 한 후 연합위원회 임원을 개선했다. 위원장에 박상하, 부 위원장에 안원규가 선임되었다. 차운중은 군사금 재부에 최두옥과 함께 선임 되었으므로 광복을 앞당기려는 차운중을 잃게 된다.

차운중에게는 미국 메인주에 있는 종이제조부 전문대학을 졸업한 아들 차성현이 있었고, 스탠포드에 거주한 최대선은 그의 처남이었다는 보도 외에 그의 마지막을 찾을 수 없다. damien.sohn@gmail.com

1910년 3월 평신도 설교자(전도사)로 파송 1915년 연초 하와이섬 코하라 한인감리교회로 파송 1925년 3월 임시 국민회 회장 선출

국인도 있었다. 목사 김이재(34세)와 사모 제니(28세)와 딸 도라(5세)와 딸 마다이(3세) 그리고 아들 동삼(5개월) 외에도 연지완(43세)과 그의 부인 이 씨(34세)와 아들 영선(6세)과 딸 충선(4세)과 아들 우선(2세) 그리고 갓 난 아들 성선, 박종기(46세)와 그의 아들 공진(12세), 김해석(24세)과 그의 부인 동갑네기 한 씨 그리고 아들 보라(6개월), 마세연(62세)과 그의 부인 메리(50세) 그리고 딸 필창(15세)과 딸 분필(11세), 마준용(21세)과 그의 부인 이 씨(22세), 심용화(50세)와 그의 부인 공 씨, 김낙일(26세)과 그의 부인 한 씨(28세) 그리고 딸 학실(5세)과 아들 영찬(3세)과 영광(4개월), 강대기(34세)와 그의 부인 강바네(21세) 그리고 처제 김아분(12세), 마형식(44세)과 그의 부인 박 씨(40세) 그리고 딸 인봉(9세)과 딸 순봉(2세), 전기화(26세)와 그의 부인 전공진(17세), 전윤비(31세)와 그의 부인 전마타(23세) 그리고 딸 파바(8세)와 어머니 전디아마, 흥택신(36세)과 그의 부인 김 씨(34세), 김중수(23세)와 그의 부인 김

각기하 지방도 맡았고, 작년에 막가웰리로 파송한 정인S와 남새Y를 권사로 다시 임명하였다.

1915년 연초에 개최한 하와이 선교부는 차운중을 하와이섬 코하라 한인감리교회로 파송했다. 1년간 목회하였지만, 세례나 학습을 받은 자가 없었고, 세례 교인이나 학습 교인도 없었고, 예배당도 없어서 인지 재정 보고도 없었다. 그러나 1년 동안 주일학교를 운영하였는데 1916년 2월에 주일학교에 25명이 등록한 가운데 두 명의 교직원을 두었다.

하와이 선교부 감독 윌슨 S. 루이스 목사는 1916년 2월에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선교부 11차 연회를 소집했다. 하와이 선교부 연회 관계 위원회의 리온 L. 루프부로 목사, G. 모토가와 목사 그리고 C. 나 까무라 목사의 추천에 따라 루이스 감독은 차운중을 캘리포니아 연회에 제2년차 목사 연수자로 추천했다. 국권 피탈 이후 하와이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일본인 간의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위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우리는 일층 더 활동하여 볼 필요가 있으므로... 더 기다릴 수 없이 후원회 간부를 조직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조직 방침에 대하여는... 제1식은 후원금 판단하심 이 중으로서 먼저 아홉 사람의 평의원을 투표로 선정한 후 이 평의원 중에서 회장과 재무 겸 사기를 평의원의 투표로 선정하고 중요 안건은 일반투표에 부칠 일. 제2식은 누구 씨나 제1식을 불찬성하시는 이는 후원회 간부 조직 방식을 본사에 제출하면 본사에서 그 제의들을 모아서 상향 부근에 있는 후원회 발기인들과 같이 조사 초집 후에 다시 공동 투표할 일. 제3식은 찬성하시는 이는 이하에 열명한 제 신사 부인 중에서 가함한 사람 아홉을 추려서 그 가함한 이름 아래 비어 둔 자리에 '가'를 쓰시되 기한은 3월 말일로 한하며, 기한 일자를 쓰며 자기의 성명을 기입한 후에 본사로 보내면 들어온 투표만으로 실행할 일."이라고 썼고, 이어서 차운중과 함께 조득란, 백일규, 최용선, 김일선, 김일선 씨 부인, 최능익, 이옥형, 이정건, 신 한, 신 한 부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대학내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9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23)913-4499, www.lbcg.com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시망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오후 1:20 영어권 (중소-KDC, 캠퍼드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게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전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32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어)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Tel: (213)381-2202, www.mpcsa.org 170 Birmin Pl., Los Angeles, CA 90004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626)8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오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영어예배: 오후 1:30(수-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fb/bedelchc.org, www.bhc.org 18700 Hanover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사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22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살비치 사랑교회 (Sea Beach St-Rang Church)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6:30 Tel: (310)749-4756 살비치 리저널 Clubhouse 3 Lobby(주일 예배 3 room 1f)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협동목사) 상담사목: (월-금) 오전 9:45 (분당) 사목대상: 2. 교회 평신도 여성성도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마나 3. 말씀사역 4. 네트워킹 사역 www.elpisfamily.org, Tel: (212)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례기도회: 365일 24시간 오픈 Tel: (714)4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월-금)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세례기도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714)646-9259, www.soci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분당) E.M. 예배: 오전 9:45 (101부)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 (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분당) Tel: 310-370-5500, www.toranceccg.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아침같이 일어나서"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500-2948, dcbk.kim@icbc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말씀과 땅 (19) - 야곱의 꿈

박성현 박사

(고든콘웰신학대학원 구약학교수)



성경은 꿈에 대한 다양한 기록을 담고 있다. 이 때 꿈의 내용도 그렇지만, 꿈 이후 이어지는 사건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꿈과 그 뒤의 사건들 사이에 종종 계시와 성취의 관계가 관찰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야곱의 꿈을 소개하는 창세기 28장은 꿈과 그 다음 사건, 즉 야곱이 취한 행동 사이의 관계를 언어적으로 정밀하게 연결한 것이 눈에 띄는 본문이다. 물론 이런 언어적 연관성을 관찰하려면 원어의 도움이 필요하긴 하다.

먼저 꿈의 내용을 담은 본문을 보자:

“11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12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13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이삭의 하나님이라...”(창28:11-13)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야곱이 취한 행동에 관한 본문이다:

“16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 이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8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 그 곳 이름을 베엘이라 하였더라.”(창 28:16-19)

이제 이 두 본문사이의 언어적 연관성을 여섯 개의 히브리어 표현을 가지고 살펴 보도록 하자.

곳/거기/여기

야곱의 꿈과 그 다음 그가 취한 행동 사이의 관계를 언어적으로 연결하는 첫 히브리어 표현은 māqôm이다. 본문에서 “곳”, “거기”, “여기”로 번역된 이 단어의 사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야곱이 예서를 피해 길을 떠나 이른 한 “곳”(11절), 베개를 삼을 돌을 취한 “곳”(11절), 그리고는 잠이 든 “거기”(11절); 바로 “여기”(16절)에 여호와께서 계시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곳”(17절)은 야곱에게 두려움, 즉,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을 깨닫게 해 주었고, 이로 말미암아 야곱은 그 “곳”(19절)을 베엘이라 이름 짓게 되었다. 막연히 다른 “한 곳”, 그 “곳”은 “거기”가 되고, 이제 야곱의 삶의 “여기”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 되어진다.

어적으로 연결하는 첫 히브리어 표현은 māqôm이다. 본문에서 “곳”, “거기”, “여기”로 번역된 이 단어의 사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야곱이 예서를 피해 길을 떠나 이른 한 “곳”(11절), 베개를 삼을 돌을 취한 “곳”(11절), 그리고는 잠이 든 “거기”(11절); 바로 “여기”(16절)에 여호와께서 계시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곳”(17절)은 야곱에게 두려움, 즉,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을 깨닫게 해 주었고, 이로 말미암아 야곱은 그 “곳”(19절)을 베엘이라 이름 짓게 되었다. 막연히 다른 “한 곳”, 그 “곳”은 “거기”가 되고, 이제 야곱의 삶의 “여기”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 되어진다.

돌

두 본문 사이의 관계를 언어적으로 연결하는 두 번째 표현의 핵심은 eben, 즉 “돌”이다. 앞 본문에서 “돌”은 베고 자려고 취한 “한 돌”에 불과 했다.(11절) 그러나 잠을 깬 야곱은 베고 잔 “돌”을 다시 집는데, 이때 정관사가 붙어 “그” “돌”이 된다.(18절) 그리고 “그” “돌”은 야곱의 예배의 초석이 된다.

베개/꼭대기/위

“베개”에도 머리가 있을까? 야곱의 꿈과 그 뒤에 그가 취한 행동 사이의 관계를 언어적으로 연결하는 또 다른 표현들은 ‘머리’의 뜻을 갖는 히브리어의 기본 명사 rō`s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베개”, “꼭대기”, “위”가 이에 해당된다. 애당초 야곱이 취했던 돌은 가로로 누워 “베개” 구실을 했다(11절). 그러나 꿈에서 그는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즉 세로로 세워진 사닥다리를 보았고(12절), 꿈에서 깨자 “베개” 삼았던 돌을 일으켜 세로로 세우고 그 ‘머리’, 즉 “위”에 기름을 부었다(18절). 머리를 하늘로 향한 사닥다

리는 야곱을 일으켜 하늘을 보게 했고, 그의 손은 “베개” 돌을 일으켜 세워 그 머리에 제사의 기름이 있게 했다.

서/서서/기둥

세로로 세워진 사닥다리를 가리켜 본문은 “땅 위에서 있는데”라 묘사한다(12절). 원문에 충실히 번역하자면 “땅으로 뻗어 서 있는데”가 될 것이다. 즉, 땅에서 위로 세운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 준 사닥다리라는 의미다. 이 때 “서”있다고 번역한 동사의 어근은 nsb다. 그리고 이 사닥다리에는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계시는 데(13절), “서서” 역시 nsb를 어근으로 한 동사의 형태다. 그리고 깨어난 야곱이 베개 삼았던 돌을 일으켜 세운 “기둥”(18절) 또한 nsb에서 유래한 단어다. 이렇게 저자는 같은 어근의 명사와 동사를 함께 사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이들 사이의 연관성을 유추해 볼 수 있게끔 하는데, 이 때 명사 “기둥”은 문법적으로 “서”와 “서서” 두 동사 중 “서” 있음과 연결된다. 즉, 야곱은 사닥다리가 “서”있듯 “기둥”을 세웠다는 뜻이다. 이렇게 저자는 문법적 기술을 통해 “기둥”이 여호와가 아닌 사닥다리를 가리킴을 분명히 하여 독자로 하여금 야곱의 예배에 우상적 요소가 없음을 분명히 할 수 있게 해 준다.

여호와, 하나님

꿈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가 만난 분이 “여호와”(YHWH)이며 그가 곧 “하나님”(elohim) 이심을 알게 해주었다.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거느리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그는 꿈에서 보았던 것이다.(12절) 이 깨달음은 야곱이 잠에서 깨어 외친 고백에 잘 반영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

지 못하였도다... 이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16-17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임을 직접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창 28:13-15).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야곱이 그리도 원했던 장자의 복, 즉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로 이진 약속의 말씀이 이제 그들 잠에서 깨었을 때, 야곱은 기둥을 세워 기름을 붓고 서 원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떡을 떼고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창28:20-22)

이 서술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21절)에 있다. 하나님이 꿈에서 계시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받드는 삶을 사는 자가 되고자 한다는 서원.

야곱의 꿈.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은 예배였다. “한 곳”이 “여기”가 되고, “한 돌”이 “그” “돌”이 되며,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그 날, 야곱은 꿈의 “베개”를 예배의 “기둥”으로 세워 이삭에게 이르되 가는 여정의 첫 걸음을 내 디뎠다. spark4@gordonconwell.edu

성 품 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하나님의 성품으로 갈등 해결하기

우리는 지금 심각한 세대 간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사회통합 국민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들 가운데 세대 간의 갈등이 “매우 심하다”와 “대체로 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62%에 이릅니다. 그 결과 높은 관계의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일자리 경쟁은 물론 남녀의 입장 차이로 인한 대립까지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갈등의 유형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가치관과 문화적 차이로 말미암아 부모-자녀, 시어머니-며느리, 장모-사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교회에서도 예배 문화와 방식에 대한 갈등이 세대 간에 존재합니다. 각 세대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크고 작은 충돌이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는 일찍이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서로 다른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로마서 12:2)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좇아 세대 간의 갈등을 치유한 사례들 중 하나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배려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애굽을 떠나 네게브로 갔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네게브로 돌아왔을 때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동거하면서 수많은 양과 소를 돌보았는데, 베넬은 이들이 있기에 협소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가족을 돌보는 목자와 롯의 가족을 돌보는 목자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난 셈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던 조카 아브람은 조카 롯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니 너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창세기 13:8-9)

손의 계산이 빠른 조카 롯은 자신의 눈에 당장 비록 보이는 요단지역의 땅을 가로채듯 선택한 뒤 떠나갑니다. 아브람과 롯, 두 사람의 갈등은 아브람이 손해를 감수하며 롯을 배려한 덕분에 잘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아름다운 배려의 덕을 실천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자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마무리됩니다. 아브라함의 좋은 성품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성품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이영숙, 2005)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감정, 행동으로 바꿀 때 우리는 그를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성품은 갈등과 위기 속에서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됩니다. 즉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살 때 어떤 갈등이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상황을 해결한 아브라함의 좋은 성품은 구체적으로 배려의 성품입니다. 배려란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피 주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배려의 성품 역시 하나님의 성품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는 데서 배울 수 있습니다. 마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잠잠함이 꺾이는 일과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행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성품이 새싹처럼 돋아납니다.”

배려 곧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관찰하고 보살피 주는 너그러움 마음이야말로 오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세대 간의 갈등을 치유할 구체적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익숙하게 생각해 온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이 과연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이끌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진리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배려의 성품을 무럭무럭 자라게 할 때,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세대 간의 갈등이란 문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goodtreeusa@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라성로교회</p> <p>담임목사: 조용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02) 579-7576, Fax: (702) 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다민족교회</p> <p>담임목사: 홍귀표</p> <p>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림교제/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찬양회: 매주(목) 오후 4:00-7:00</p> <p>Tel: (773) 821-1112, estross@yahoo.com 66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p>	<p>몽고메리교회</p> <p>담임목사: 최해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346</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인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67</p>	<p>베넬교회</p> <p>담임목사: 백성중</p> <p>주일 1부예배: (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장영) 오후 1:45 다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ott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p> <p>담임목사: 장성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508) 435-4579, www.bostonlrea.org 2 Main St, Hingham, MA 01748</p>
<p>새생명안인교회</p> <p>담임목사: 정성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후 7:00(목) 새벽 예배: 오전 6:00(화/토) 구 역 예배: 각 구역별로 한국 학교: 오전 10:20(주일)</p> <p>Tel: (850) 423-9700, Cel: (213) 703-9961 5502 Old Bethel Rd, Crestview, FL 32536</p>	<p>알킨사제자교회</p>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 920-9049, www.jeje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앵커리지열린문교회</p> <p>담임목사: 유재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anwood St, Anch, AK 99518</p>	<p>영생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백운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 542-0288, Fax: (215) 542-9037 706 Wilmer Rd, Horseshoe, PA 19044</p>	<p>킬린은누리교회</p> <p>담임목사: 김성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p> <p>Tel: (254) 335-1842(H), (254) 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84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p>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03) 8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박장호</p> <p>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53) 536-6675, www.laccnacr.com 9424 S. Yelkum Ave., Tacoma, WA 98444</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 때!

1950.6.26. 6.25 전쟁이 일어 난 다음날 밤 11시 45분에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요청으로 UN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려 북한을 침략을 불법화하고 유엔 경찰관 파견을 결의하던 그 순간에 소련대표 아담 말리크는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캐딜락(Cadillac)을 타고 뉴욕 거리를 달려가던 중 UN건물 몇 블록 밖에서 자동차 엔진이 꺼져버렸습니...

다. 운전자들이 조국 땅에 와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살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 줄 믿 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잠8:17"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람을 임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렘29:13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라고 했고, 시50:15에"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곧 고집니다”해서 기다리던 중 결국 회의에 참석치 못하여 거부권 행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절망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한 주의 종들의 기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두 달 만에 대구와 부산만 남기고 남한은 공산군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 부산 초량교회와 대신동 초등학교에 모여든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매달려, 1주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이 전쟁이 모두 내 탓이라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였습니다. 우리 죄인을 구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 조국을 구해 달라고, 살려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눈물로 불렀던 찬송이 387장 “멀리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수 내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하소서(찬 440)”이었습니다. 주의 종과 백성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통곡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낙동강 전선을 지켜주시고, 인천상륙작전을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겸비할 때 배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겸비할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미군들 36,940명의 전사자의 피가 한반도에 흐르면서 비로소 미국과 한국은 혈맹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전 세계 16개

국의 젊은이들이 조국 땅에 와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살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 줄 믿 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절망의 홍해가 나타날 때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의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songkpk@hotmail.com



국제중보기도모임 치유와 회복성회에서 다함께 찬양의 시간을 가졌다

국제중보기도모임 치유와 회복성회

박마이클 목사,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

국제중보기도모임(대표:박드라 목사)은 치유와 회복성회 를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라는 주제로 10월 9일(주일) 오후 5

시에 하크네시야교회에서 열었다. 강사로 나선 뉴욕한마음침례교회 담임이자 월드하베스트미니스트리 대표인 박마이클 목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을 전했다. L사모의 대장암 치료 간증, C자매의 골수암 치료 등 간증이 있었다. 찬양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도 가졌다. 뉴욕교계의 대표적인 찬양사역자들인 김정길 목사, 김영환 전도사, 이광선 사역자 연합찬양 인도, 그리고 지구촌선교회와 중국회중 찬양팀의 특별 찬양이 있었다. <정리: 김재상 기자>



가족수련회 참가자들이 함께 단체 사진을 촬영했다

RCA 뉴욕한인목회자협의회 가족수련회

컬럼버스데이를 맞아 예배와 교제의 시간 가져

RCA 뉴욕한인목회자협의회 (AKRCA, 회장 박희열 목사)는

가족수련회를 10월 9일(주일)부터 1박2일간 뉴저지에 있는 크라운플라자호텔에서 열었다. 휴일인 컬럼버스데이를 맞이하여 주님이 주시는 쉼과 함께, 예배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첫날 예배는 회장 박희열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풍삼 목사가 고린도후서 2:4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 이어 한재홍 목사가 축도를 했다.

또 특별활동으로 뉴저지 조각공원 투어,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늘푸른농장을 방문하여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가을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정리: 김재상 기자>

책 소개



김라니 목사(메시아 솔리스트 앙상블 이사장)

'이제는 부르리, 바람의 노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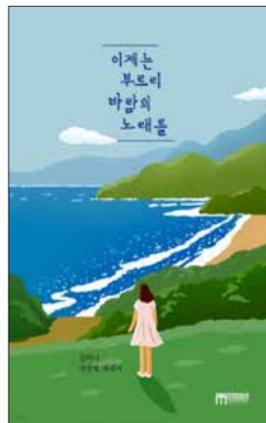
김라니 목사의 자전적 에세이집 '이제는 부르리 바람의 노래를'이 출간됐다. 서울에서 태어나 풍문여고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재학 중 미국으로 도미한 저자는 갑작스런 남편에 죽음을 앞둔 절망했던 순간들과 시간의 흐름을 따라 오늘이 있게하신 하나님

의 은혜를 진솔하게 수록하고 있다. "홀로 선 신 세월에 대한 회상이고 어느 덧 아빠를 닮아 있는 세 딸의 이야기 그리고 미국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저자는 책을 마무리한 끝자락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김라니 목사는 "아메리카 바람이 불어 미국에 온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요한(남편)의 죽음으로 그토록 찬란하게 빛났던 날들이 하루아침에 캄캄한 좌절의 밤으로 변했다. 그러나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는 말처럼 어둡고 힘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난 후 희망을 보았다"고 말한다. 그는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이 세 가지라고 서술한다. 첫째는 로또에 당첨 되는 것 둘째는 대기업에 스카우팅되는 것, 셋째는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자신은 로또에 당첨 되는 것보다 더 정당한 큰돈을 받았고, 이 세상 그 어느 큰 회사와도 비교되지 않는 주의 종으로 불러 주셨고, 딸 아이를 통해 전 세계 어디든지 다니는 비행기 티켓을 받아 세

계 곳곳에 선교하고 다니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이 책 페이지 마다 박혀 있다. 본서는 1부 '마지막 날', 2부 '아메리카 바람' 3부 '홀로서기'로 구분되어 70편의 글을 통해 자신의 일생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세하고도 진솔하게 이야기하듯 이어냈다. 책 구입에 관한 문의는 (714)213-3883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Large advertisement for '해외 교회' (Overseas Churches) featuring a grid of church listings with names, addresse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a compass graphic and the slogan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교계 기사판

제9차 다민족선교대회 2022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회장 황규복 장로)는 제9차 다민족선교대회 2022를 "GO or SEND"라는 주제로 10월 16일(주일) 오후 5시 부터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에서 개최된다. 주강사로 김재열 목사(뉴욕센트럴교회)가 말씀을 전할 예정이다.

▲문의: 회장 황규복 장로 917-204-9879, 준비위원장 송정훈 장로 917-921-3310

뉴욕순복음교회, 10월 성령대망회 개최

은혜와진리교회(담임 심화자 목사)가 주최하는 10월 성령대망회 영성회복 집회가 10월 18일(화) 오전 10시 30분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김학진 목사(뉴욕장로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빙한 가운데 개최된다.

▲문의: 심화자 목사 646-725-9318

ACE 창립예배 및 출범식 개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음세대를 세우고자 2022년 11월 1일(화) 저녁 7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ACE 창립예배 및 출범식'을 개최한다.

ACE(Adullam Community in the Endtime)는 교회병행단체로 전세계, 각 나라 및 지역 교회와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교단체이다.

▲문의: 사무총장 646-266-0039, Adullam69@gmail.com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신학생과 목회자 대상 공개강좌(강사 류용열 목사)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는 신학생과 목회자 대상 공개강좌를 10월 19일(수)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퀸즈장로교회 본당에서 개최한다. 강사 류용열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는 특강1, 2차에 걸쳐 "성경적 목회자와 설교자, 그들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718-463-7163, rptseminary@gmail.com

뉴저지믿음장로교회, 찬양콘서트 "Return to the Lord"

뉴저지믿음장로교회(담임 박상훈 목사)는 11월 6일(주일) 오후 5시부터 "여호와께 돌아가자(Return to the Lord)"를 주제로 찬양콘서트를 연다. 뉴저지믿음장로교회 주소: 1209 West Front St. Lincroft, NJ

▲문의: 732-747-2992

뉴욕교협 정기총회 및 준비기도회 안내

뉴욕교협(회장 김희복 목사)의 정기총회가 10월 27일(목) 오전 10시 부터 하크네시아교회(담임 전광성 목사)에서 열린다. 모든 교협회원교회는 사전등록을 10월 20일 오후 5시 까지 해야한다. 총회에 앞서 준비기도회가 10월 19일(수) 오전 10시30분에 하크네시아교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문의: 교협사무실 718-279-1414, 총무 631-327-8046

뉴욕호산나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뉴욕호산나장로교회에서 교회부흥의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감당할 담임목사를 청빙 한다. 대상은 40대~ 50대 초반이며 밑에 이메일로 문의 및 접수 받는다. 주소: 61-11 220th St., Bayside, NY, 11364

▲문의: yys1405@gmail.com

뉴욕감리교회 영유아부 사역자 청빙

뉴욕감리교회(담임 강원근 목사)에서 소명과 열정을 가지고 기도와 사랑으로 영유아부(Pre-K) 사역을 감당할 파트타임 사역자를 청빙한다. 사역: 영유아 주일 예배 인도 및 설교(한국어 설교 가능), 초등부 교회 행사 함께 진행 자격: 신학대학교 재학 이상 (혹은 신학을 하지 않아도 경력 많으신 분) 제출서류: 신학교 졸업/재학 증명서, 자기소개서(신약간증), 이력서(사진포함)홈페이지: www.nypumc.net주소: 992 Old Country Rd, Plainville, NY 11803

▲문의: 강원근 목사 wokang@gmail.com, 사무실 516-681-0164



뉴욕권사선교합창단이 칸타타 "여인들의 새 노래"를 찬양하고 있다

뉴욕권사선교합창단 제19회 정기 연주회

창단20주년 기념, 칸타타 "여인들의 새 노래"

뉴욕권사선교합창단(단장 이은숙 권사) 정기연주회가 10월 9일(주일) 저녁6시, 뉴욕신광교회(담임 강주호 목사)에서 개최됐다. 뉴욕권사선교합창단은 2002년에 한국 주재민을 위한 제1회 정기연주회를 가진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년 연주회를 개최하여 불우이웃과 선교기금모금에 힘써왔다. 지난 팬데믹 사태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받았으나 올 2022년에 창단 20주년 기념 위촉 작품인 "여인들의 새 노래" (작사 이상

윤, 작곡 이가영)을 봉헌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칸타타 연주회에서는 지휘 양재일, 반주 이정현, 소프라노 김은희, 메조 소프라노 박영경, 소프라노 백성화, 바리톤 박세진, 테너 최인석, 피아노 정혜민과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으며 예담선교팀(단장 장영주)의 모듬북과 소고춤 공연이 칸타타와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찬양과 연주를 이끌었다.

(김재상 기자)



성경암송대회 수상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주님의 식탁 선교회 2022 성경암송대회

"우리에게 준 성경암송 축복"

주님의 식탁 선교회(대표 이종선 목사)는 10월 10일(월) 오전 9시부터 목양장로교회(담임 허신국 목사)에서 성경암송대회를 열었다. 개최기도로 성경암송대회를 시작했으며 오수시간을 통해 시상식과 폐회예배를 드렸다. 신현국 목사의 사회로 드려진 폐회예배는 기도 이상만 목사(뉴저지 베이직교회), 성경봉독 김일태 이사장(뉴욕교협 이사장), 설교 이종선 목사(주님의 식탁 선교회), 헌금기도 지도자 목사, 축사 황미광 대표(늘가족재단), 이종선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종선 목사는 '오직 성경으로(디 모데후서 3:15-17)'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준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더 성숙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심사는 신현국 목사, 지도자 목사, 이하원 전도사가 맡았으며 이번 대회를 위해 각 개인과 단체에서 상금을 기증하여 수상자들에게 수여했다. △최우수상 이종선 목사 부부 △1등: 펠릭스 한인교회 오대석 목사 △2등: 뉴욕교협회장 김

희복 목사 △3등: 뉴욕교협 이사장 김일태 △장려상: 김인환 집사, 김경구 권사 부부

본 성경암송대회는 참가자 전원 필수 암송 (마태복음 5장)과 선택 암송으로 진행됐다. 수상에는 △최우수상 정혜경 권사(퀸즈장로교회) △1등 이옥자 권사(스테이트 아일랜드 연합장로교회) △2등 김마리아 권사(뉴욕장로교회) △3등 이애실 사모(뉴저지 브니엘장로교회) △장려상 이인신 권사(윅커스 한인동산교회), 이동희 사모(뉴저지 산소망교회), 고정순 권사(가스펠 헬로우교회), 안찬국 목사(뉴저지 베이직교회 협동목사)가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정혜경 권사(퀸즈장로교회)는 마태복음 5장과 갈라디아서 1-6장을 암송했다. 성경암송 비결에 대해 "각 장에 줄거리를 이해하고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암송했으며 성경암송 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며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며 말씀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가 되기를 기도 하며 준비했다"고 전했다. 폐회예배 후에는 2022년 성경암송대회에 대한 결산 보고를 통해 남은 잔액은 주님의 식탁 선교회 노숙인 사역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의했다.

(홍현숙 기자)

퀸즈장로교회, 중국교포위원회 설립 15주년 기념예배

중국교포부를 통해 중국어 예배부와 다민족 사역의 길 열려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중국교포위원회 설립 15주년 기념예배를 9일(주일) 오후 4시에 퀸즈장로교회 본당에서 드렸다. 퀸즈장로교회는 미국으로 이민 온 중국 교포들이 플라싱을 포함한 퀸즈 지역에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07년 중국교포위원회를 조직하여 중국교포들을 전도하고, 목회하는데 힘써왔다. 본 15주년 기념예배는 하늘소리의 북 연주 서장으로 시작되어 사회 차상남 장로(중국교포위원회 위원장), 기도 정성호 장로, 성경봉독 김혜나 학생(고등부)의 순서로 진행 됐다. 김성국 목사는 "앞서 건너가서(여호수아 1:12-15)"를 주제로 설교했다. 김성국 목사는 "여러 이민 민족들이 오게 되고, 다민족 선교를 하게 되는데 이 사역을 어떻게 담당할까? 그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 달라고 기도했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중국교포들이 앞장서 왔기에 그것이 가능했다. 본문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를 포함한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을 마친 내 이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다민족사역을 하겠노라

고 하였을때 중국교포들이 앞장서서 나아감으로 다민족 사역이 모두 가능했다. 이제는 중국교포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다민족 성도들이 모두 다 함께 앞장서서 전진해야 한다. 앞장서지 않고, 남의 일로 여기며 뒷받치고 있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 우리 모두가 다민족 사역과 교회를 섬김에 있어 먼저 앞장서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설교했다. 이어서 중국어예배부 찬양대의 화답찬양과 주향의 율동, 교포부 워십팀의 바디워십, G2G 어린이 찬양팀의 신나는 찬양이 이어졌다. 중국교포위원회 위원장 차상남 장로는 광고시간을 통해 "120년 전 부터 우리 민족을 역사 가운데 만주로 이주시킴으로 10억이 사용하는 중국어를 익힌 중국교포들을 미국으로 퀸즈장로교회로 부르심으로 중국어예배부사역을 가능하게 하셨다. 중국교포부는 섬김으로 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부서이며 믿음이 날로 성장해 가고 있다"고 전했다. 모든 순서는 김성국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김재상 기자)



퀸즈장로교회 중국교포위원회 설립 15주년 기념예배 후 단체사진을 촬영했다

박용규 교수 "성령의 복음" 세미나

뉴욕영락교회에서 10월 31일 예정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아 박용규 교수(총신대 명예교수, 역사신학)를 강사로 초청하여 이민교회를 위한 "성령의 복음" 세미나가 열린다. 세미나는 한국기독교사연구소(소장 한규무)와 아멘넷(대표 이종철)에서 주최하며, 작은교회연구소(대표 최호섭 목사)에서 주관한다. 세미나는 10월 31일(월)과 11월 1일(화) 2일 동안 오전 9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뉴욕영락교회(담임 최호섭 목사)에서 열린다. "성령의 복음" 세미나는 박용규 교수가 성령사역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조명하여 2020년에 발간한 <성령의 복음> 저서를 이용하여 진행한다. 주최측은 "한인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

아가 회복과 갱신과 부흥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줄 세미나"라고 강조했다. 박용규 교수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기름부으심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계속된 것을 볼 수 있다.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특별히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록비: \$20 (저서와 점심 포함) 뉴욕영락교회 주소: 65 East Williston Ave, East Williston, NY 11596 ▲문의: 516-232-3705 nyyoungnak@gmail.com (기사제공: 아멘넷)

뉴욕장로연합회, 제1회 목회자 감사의 날 가져

한인교계에 목회자 감사의 날 원년 선포

대뉴욕지구장로연합회(회장 황규복 장로)가 미주한인교계에 제1회 목회자 감사의 날을 선포하고 시작했다. 장로연합회는 10월 8일 토요일 정오에 플라싱 산수감산2 연회장에서 뉴욕 원로성직자회와 원로목사회에 속한 원로급 목사들을 초대하여 목회자 감사의 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목회자에게 감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제1회 목회자 감사의 날 예배는 사회 이주수 장로, 기도 송정훈 장로, 말씀 뉴욕교협 회장 김희복 목사, 특송, 광고 및 선물 증정 회장 황규복 장로, 축도 뉴욕목사회 회장 김명옥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예배를 시작하며 회장 황규복

장로는 한인교계에 목회자 감사의 날 원년을 선포하고, 앞으로 한인교계에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을 기대했다. 미국교회들은 30년 전인 1992년부터 10월 둘째 주일을 '목회자/성직자 감사의 날(Clergy/Pastors Appreciation Day)'로 정해 목회자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 왔다. 회장 황규복 장로는 "목사님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구원의 진리를 배울 수 있었으며, 오늘날 장로나 헌신자가 될 수 있었겠는가?"라며 목회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장로들은 참가한 목사들에게 식사와 함께 따뜻한 장감을 선물했다. (기사제공: 아멘넷)



뉴욕장로연합회 제1회 목회자 감사의 날 참석자들이 함께 사진촬영을 했다

피종진목사 10월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제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 한국 뉴욕주립대학교 영어연구팀 총문화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 (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 (Th.D)
010-5255-7777
God Bless 3377@gmail.com

2(주) 저녁 원주 가곡교회 (이종민 목사) 010-9731-7077
3(화) 저녁 원주 열기교회 (안수준 목사)
4(목) 오후 총복 고산 예배당 (원장 이종선 목사)
5(수) 미국 (USA) LA 세계기독교어머니기도회 (대표회장 이선자 목사) (714) 220-7660
6(목) 미국 (USA) 미주서부지역 I Pray for all Nation (세기모 미주서부지역총회 김영구 목사) (310) 404-6219
7(금) 미국 (USA) 미주 예배교회 (심진구 목사) (213) 590-9191
8(토) 미국 (USA) LA acquaintance MT
9(주) 9-11 미국 (USA) 오렌지 한인교회 (피재원 목사) (949) 636-1558
9(주) 저녁 미국 (USA) LA OC 남가주기도대성회 (주최 세계기독교어머니기도회)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이선자 목사 (714) 220-7660
10(월) 미국 (USA) 남가주 Kamlim World Prayer Center (원장 김은옥 목사) (213) 249-2467
11(화) 미국 (USA) 남가주 Knapp Seymour University (총장 Tomas Vrumpil)
12(수) 미국 (USA) American West College & University (목회자 세미나) (미사실 총동문 박사 행정총장 심진구 목사) (213) 590-9191
13(목) LA 총합 K5012 2330-원년 도약 15(금) 04:50
15(토) 오전 인천산수감교회(황귀례 목사) 010-4423-2838
15(토) 오후 (사)한국기독교부흥사 단체총연합회 (대표총재 피종진목사 중앙대표회장 오병영목사) 장소: 대부도 열림수영장 (원장 김우경 목사) 010-8898-9141
16(주) 오전 서울 열마누엘교회 (장요한 목사) 010-2393-0616
17(월) 오전 제5회 전국여성지도자컨퍼런스 장소: 서울프레스센터 20층 주최: 한국기독교여성선사 (문)비룡자 장학 회장 최금숙 교수 발행인 김효숙 목사 010-5591-2325
18(화) 오후 인천 글로벌교회 (장요한 목사) 010-3670-8999
19(수) 저녁 서울 강남 반석기도원 (남보석 목사)
20(목) 오전 천안 Miracle International Mission Center (대표회장 김익수 목사) 010-9082-9030 아산 새벽별교회 (김우수 목사)
20(목) 오후 서울 영락교회 선교센터 주최: 한미연합부흥장사단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이규범 목사 010-2238-3999
23(주) 저녁 대전 주안장로교회 (전정순 목사) 010-7292-3377
24(월) 오전 KAICAM 목사 안수실 (연합회장 김은옥 목사) 장소: 분당 왕복야구 교회 (02) 3675-1323-5
24(월/26수) 제주 컨퍼런스 주최 한국교회예배회복운동본부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이사 김기성 R 010-5270-7105 장소: 제주 상해인 관광호텔
27(목) 오전 연세대학교 연세동문 목회자의 날 장소: 연세동문회관 3층
28(금-29토) 천안 위대한학교회 (윤재민 목사) 010-6352-0691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www.nscar.or.kr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Tel. 02)3411-9191
Fax. 02)401-7770

아주사퍼시픽신학교 한국어부 캠퍼스 이전예배

“우리 주변에 최고의 공핍함은 영적 공핍”

아주사퍼시픽신학교(총장: Adam Morris) 한국어부 캠퍼스 이전예배가 6일(목) 오후 5시에 옐로스톤 캠퍼스에서 열렸다. 변명해 교수(한인석사과정 디렉터) 사회로 시작된 이전예배는 피세원 목사(오렌지한인교회)기도와 백성렬 교수의 설교로 진행됐다. 백교수는 ‘섬김의 사고와 삶의 방식(눅 9:10-17)’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기여 주님을 섬기는 일은 마땅하며 주님의 종이기여 반드시 행해야 하는 임무”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우리 주변에 공핍한 자들이 있다. 예수님이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다. 그들이 알던 모르던 가장 중요한 공핍함은 영적인 공핍함이다. 그걸 보기에 우리는 모여서 공



아주사퍼시픽신학교 한국어부 캠퍼스 이전예배에서 변명해 교수가 신입생들을 소개하고 있다

부하고 사역하고 있는 것이며 그들을 섬길 때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된다. 우리는 사역을 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하지만 주님은 그 부족함을 그대로 가져오라고 하신다.

주님은 우리들의 부족함을 아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 주변에 공핍해서 필요

한 자를 바라보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 그들에 대해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필요를 채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보다 나의 부족함 고백하고 무엇인가 해주어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들의 환경, 물질, 명성, 두뇌가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하다고 생각될지라도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은 받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실 것”이라 말했다.

이어 스티브 맨 교수와 팀 핀리 교수가 격려와 인사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승광철 동문회장의 동문회 인사가 있었으며 교수소개와 신입생 소개로 이어졌다. 이날 예배는 윤석길 목사(보교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생명의전화 창립24주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생명의전화 창립 24주년 기념 감사예배

“생명을 살리고 소망을 주는 사역이 되길”

생명의전화(원장 박다윗 목사) 창립 24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6일(토) 오후 5시 남가주세 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열렸다. 박다윗 목사는 “생명의전화가 76년 서울에 설립되었다. 제자신이 생명의 전화에서 훈련받고 10년간 상담봉사를 했다”며 “미국에 와서 사역을 위해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로부터 ‘네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받았고 이민자들이 겪는 신분문제와 가정문제를 경험하면서 뜻있는 목회자들과 함께 1998년 6월 미주동포회해 생명의전화가 설립했으며 지금까지 사역을 이어왔다”고 말하며 수고와 헌신으로 섬겨준 상담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박다윗 목사 사회로 열린 감사예배는 김동원 목사(제6기 상담봉사원)가 기도했으며 최경희 집사(24기 상담봉사원 회장)가 성경봉독했다. 이어 OC살로몬찬단인 특별찬양했으며 이장민 목사(LA 연합감리교회 담임)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시 121:1-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

했다. 이장민 목사는 “24년동안 생명의전화가 쓰임받게 된 것 감사하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다음세대, 이민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생명의전화 사역이 이민사회를 살리고 어려운 생명 살리고 소망을 주게 되기를 기대한다. 귀한 한 생명을 두고 기도하고 살리는데 충분히 감당하는 상담원들과 관계자들 되길 축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영진 목사와 감미영 교수(미주장신대학교)의 특송이 있는 뒤 이정현 목사(한기총 미주 지역 대표회장)가 축사했다. 이어 300시간 상담봉사원과 500시간 상담봉사원에게 봉사자 감사장 및 메달 수여했다. 이날 감사예배는 이태환 목사(남가주 원로목사회 전회장) 축도로 마쳤다. 다음은 이날 봉사자 감사장 및 메달을 수여받은 자들이었다. △300시간 상담원 :이춘옥(18기), 신미경, 최규희(이상 19기), 고미라, 김태현(이상 22기), △500시간 상담원: 유숙희(19기), 박종갑(20기) <박준호 기자>



오렌지한인교회에서 열린 일일부흥회에서 피종진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오렌지한인교회 일일부흥회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성도가 되자”

오렌지한인교회(담임 피세원 목사) 일일부흥회가 9일(주일) 예배시간에 가졌다. 피세원 목사 사회로 11시에 열린 예배는 김형삼 장로가 기도했으며 피종진 목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리로다(단 3:11-1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피종진 목사는 “이 땅에 한평생 사는 동안 눈물 없는 곳은 없다. 본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렵고 힘들고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견뎌내셨는가? 첫째 죽음보다

강한 신앙이 무장되어 있었다. 신앙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한다. 둘째 권세보다 강한 기도의 역사가 있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들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피종진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미서부 LA 회장 이취임식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의 세계화에 힘쓸 것”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미서부 Pacific Los Angeles 지회(KPLA)는 지난 9월26일 오후 5시30분 용수산에서 코윈 퍼시픽 LA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신규 회장단 및 60여명의 하객이 참석한 행사에서 정정숙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간의 사랑을 기반으로 주변의 불우한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차세대 인재양성과 한민족 여성들의 연대 강화에 힘쓰며 전 세계 회원들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의 세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코윈퍼시픽엘에이(KOWIN PACIFIC LA)는

2001년 여성부 출범과 동시에 창립된 코윈(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의 미서부지회이며, 무국적 입양아 국제 찾아가기 행사를 주도하는 등 한민족 여성들의 연대 강화와 상호 교류, 재외 한민족 여성 리더 양성, 한민족 여성의 정체성 제고를 통한 세대 간 지역 간 연대 강화 및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의: 정정숙 회장 626-833-2564 김혜자 부회장 818-209-0945 (기사제공: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미서부 Pacific Los Angeles 지회)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미서부 LA 회장 이취임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아이에아연합감리교회 창립 46주년 기념예배를 마치고 이성현 담임목사와 관계자들이 계획을 자르고 있다

아이에아연합감리교회 창립 46주년 기념예배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시작이고 출발점”

아이에아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현 목사) 창립 46주년 기념예배가 지난 2일(주일)에 열렸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이성현 목사 사회로 시작된 11시 예배는 전담순 장로가 기도했으며 연합찬양대가 찬양했다. 이어 권종석 장로 은퇴찬양예식이 있었다. 권종석 장로는 “주님의 은혜가운데 은퇴를 하게 되었다. 부족한 저에게 은퇴찬양예식을 마련해주신 교회와 교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닦아놓은 굳건한 반석위에서 교우여러분들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헌신이 풍성히 열매 맺기를 기도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성현 목사가 ‘교회의 DNA-하나님의 선물(엡 2:1-10)’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성현 목사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다. 이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다. 인간에게 영

생이 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첫째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둘째 공공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셋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며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에서 복 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다. 예수 믿으면 막연하던 천국소망이 분명해 진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의 근원적 출발점은 구원의 감격이다.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시작이고 출발점이다. 그리스도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은 나만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이다. 개인의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46년 전 이곳에 세워진 아이에아교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했다. 이어 이주연 집사가 간증했으며 카리스남성중창단이 특송했다. 이날 예배는 이성현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서부교계 기사판

코너스톤교회 창립 29주년 예배

코너스톤교회(담임 이종용 목사) 창립 29주년 예배가 16일(주일) 예배시간(오전 9시, 11시, 오후1시)에 갖는다. ▲ 문의: (310)530-4040

파사데나장로교회 창립기념예배

파사데나장로교회(담임 최진영 목사) 한인회중 창립 21주년 기념예배가 16일(주일) 예배시간(정오)에 갖는다. ▲ 문의: (626)793-2191, (213)379-2627

대흥장로교회 고 권영국 목사 추모예배

대흥장로교회(담임 김정훈 목사)는 고 권영국 목사 추모예배를 20일(목) 오후 7시에 갖는다. ▲ 문의: (310)719-2244

2022 시내산 학술 세미나

세마포호도스(대표 켄 안 선교사)가 주관하는 2022 사우디 시내산 학술 세미나가 15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에서, 그리고 17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김승학 장로 ▲ 문의: (707)710-5070, (657)220-4196

제3회 선교사자녀 장학기금마련 골프 토너먼트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신용)주최 제3회 선교사자녀 장학기금마련 골프 토너먼트가 24일(월) 오전 10시30분 로스코요테 컨트리클럽(8888 Los Coyotes Dr, Buena Park, CA 90621)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150(그린피 및 점심, 저녁 만찬 포함)이다. ▲ 문의: (562)399-2022, (213)500-5449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추계부흥회에서 주성민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은혜한인교회 추계부흥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추계부흥회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6일(목)부터 9일(주일)까지 주성민 목사(세계로금란교회)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열렸다. 은혜한인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7일(금) 오후 7시30분에 열린 둘째날 저녁집회는 할렐루야 성가대가 특별찬양했으며 주성민 목사가 ‘승리의 삶(벤전 5:8-9)’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주성민 목사는 “마귀는

각 사람의 생각과 정신을 사로잡아 넘어뜨린다.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는 기도이다. 기도할 때 마귀가 떠나 간다”고 강조했다. 주 목사는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기도하기에 선교하게 되고 사명이 있게 된다”며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선포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날 집회는 한기홍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생수의 강 선교교회 담임 목사 이취임식 감사 예배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사진 왼쪽 왼쪽 세번째가 최형규 담임목사이며, 네번째가 안동주 원로목사이다.

생수의강선교교회 담임목사 이취임예배

안동주 원로목사 추대, 최형규 담임목사 취임

생수의강선교교회 담임목사 이취임예배가 지난 2일(주일) 오후 4시에 열렸다. 이날 담임목사로 취임한 최형규 목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며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만남의 축복 허락해주셨다. 좋은 목사님들 만날 수 있게 인도해주셔서 많은 것 배울 수 있었고 넘치는 은혜 많이 받았다. 이 순간 이곳에서 생수의 강 선교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큰복이다.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생수의강선교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김종욱 목사(예장국제총회 상임총무) 사회로 열린 이취임예배는 최규남 목사(GMU총장)가 기도했으며 김찬

회 목사(브레아한인교회)가 성경봉독했다. 이어 연합찬양대 찬양이 있었으며 김재문 목사(사랑의빛선교교회 원로)가 ‘교회는 예수의 몸(고전 12:25-28)’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본교회를 개척하고 27년 동안 담임목사로 사역한 안동주 목사 원로목사 추대식이 있었으며 이동준 목사(미주노회)가 원로목사 추대패를 전달했다. 이어 담임목사 취임식이 있었다. 취임식은 담임목사 취임사약, 교인사약, 공포, 취임패전달로 이어졌다. 이어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 축사 및 권면했다. 이날 예배는 김영철 목사(제1대 GMI선교사 훈련원 원장)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캄보디아에 병원 믿음의 불모지 속 선교 길 열다

제22회 언더우드 선교상에 김우정·김종진 선교사

제22회 언더우드 선교상에 김우정(68·왼쪽) 캄보디아 선교사와 김종진(57) 몽골 선교사가 선정됐다. 연세대 언더우드기념사업회는 2001년부터 매년 해외 오지에서 헌신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를 선정해 이 상을 주고 있다. 시상식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루스체플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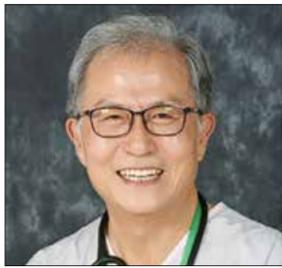
김우정 선교사는 10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선교의 기초를 놓았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름으로 주는 상인데 이를 받게 돼 영광이고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가톨릭대 의대를 졸업하고 소아과 병원을 개업했던 의사다. 2006년 캄보디아 의료 선교사로 파송받은 후 이듬해 프놈펜에 헤브론병원을 세웠다. 작은 가정집에서 시작한 헤브론병원엔 현재 의사 28명, 간호사 35명을 비롯해 100여명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으로 성장했다. 지난해까지 5만7000명 넘는 환자가 헤브론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외과수술도

8000건 이상 진행됐다. 2014년에는 병원 내에 4년제 간호대학을 세워 현지 의료인을 양성하는 역할도 감당하고 있다.

김우정 선교사는 “처음 헤브론병원 문을 열었을 때 밀려드는 환자를 바라보며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가 찾아오는 모습이 인상됐다. 동시에 우리나라에 와서 학교와 병원을 세워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쳐 주셨던 선교사도 생각 났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 선교사들을 닮고 싶어 책도 읽고 공부하며 사역했다. 그분들의 눈물과 기도를 교과서 삼아 앞으로 바쁜 길을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상자인 김종진 선



교사는 2002년 몽골 울란바토르에 파송받은 후 몽골 곳곳에 13개의 현지인 교회를 개척했다. 2007~2018년 ‘천국의 은혜’라는 뜻의 NGO ‘팅게림 니골셀’을 세워 교회 주변 가난한 아동을 위한 ‘토요 사랑의 학교’를 운영했다. 2008년까지 후레정보통신대학교 교수와 부총장으로 사역했으며 현재는 MTBC신학교 교수와 선교사자녀학교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다.

그는 “몽골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몸도 힘들고 동역자도 없어 내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이 컸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다는 생각으로 선교하다 보니 지금에 이르렀다”며 “앞으로는 현지인 교회 성도들이 수련회를 열거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원 사역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와주셨다. 물심양면으로 사랑받으며 공부했다”고 감사를 표했다. 임 목사가 담임하는 동안 18명이 교회 장학금으로 신학교를 졸업했다. 이동열 목사는 “춘천동부교회 시절 경험을 통해 우리 교회를 찾는 가족에서부터, 버림받은 사람, 오갈데 없는 사람을 끝까지 돌볼 수 있는 것 같다”고 했다.

80년대 후반 대학부를 담당했던 이기훈 목사는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일은 참 힘들지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할 일”이라며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달란트를 잘 활용해 목회하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1대 목사로 초빙받은 임 목사는 손사래를 쳤다. 1986년부터 20여년간 담임한 그는 “여기 모인 이들이 나를 칭찬하지만 사실 나는 50점짜리에 불과하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목회 방향에도 장단점이 있다. 그걸 잘 살펴보자”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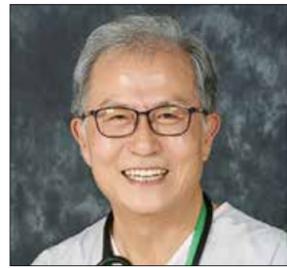
90년대 춘천동부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했던 마성호 배다니교회 목사는 “3대 청년과 2대 부교역자, 1대 담임목사로 이뤄진 ‘영적 3대’가 만나 목회 여정을 나누며 연대감을 느꼈고 앞으로도 같이 사역을 고민하기로 해 뜻깊었다”고 평가했다.

안산동산교회(김성겸 목사)가 한국교회 섬김 사역의 하나로 지원하는 세뫼새는 ‘세대를 뛰어넘는 새 플랫폼’의 약자로 한국교회의 미래와 방향을 제시해 왔다.

의했지만, 이번 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올리지 못한 점과 최근 독일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1차 총회에 비용 문제로 참석하지 못한 점 등을 지난 회기 동안 남겨진 아쉬움으로 꼽았다.

올해 말 물러나는 전 총회장 이흥렬 목사는 이날 ‘먼저 구할 것’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앞으로 루터회가 나갈 방향을 조언했다. 이 목사는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와 의는 ‘정도’ 곧 바른길, 옳은 길을 걷는 것”이라며 “우리 성직자들이 부족하더라도 ‘땅의 가치관’이 아닌 ‘하늘의 가치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자”고 권면했다.

총회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7일까지 진행된다. 첫날 총회에는 55명의 총회대의원(총대)이 각각 현장과 온라인 줌으로 참석했다.



30여년 만에 만나 은혜롭고 고된 목회 여정 나눴다

춘천동부교회서 청년·부교역자·담임목사로 교제했던 ‘영적 3대’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그 교회 그 목사를 지금 만난다면. 30여년 전 강원도 춘천동부교회(김한호 목사)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담임목사, 사역자, 사모 등으로 사는 7명이 10일 경기도 안산 ‘The 행복한 스테이지’에 발제자로 모였다. 당시 대학부 담당 이기훈 은누리교회 사회선교부 목사, 담임 임신영 춘천동부교회 원로목사를 만나 삶과 목회 여정을 나누고 조언을 들었다.

모임은 세뫼새KOREA가 목회 본질 탐구를 위해 이날까지 이틀간 진행한 ‘2022 세뫼새 플랫폼 데이’ 프로그램의 하나인 리비전 캠프(Re:vision camp)였다. 참석자들은 정겨운 회고담에 웃기도 하고 고된 목회 여정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동열 대농제일교회 목사는 “대학부 때 조장 6~7명

이 이기훈 (당시) 전도사님 사택에서 성경공부를 하고 사모님이 차려주시는 밥을 먹었다”며 “버거우셨을 텐데 전도사님은 우리와 운동, 여행도 함께했다”고 했다.

춘천동부교회는 이기훈 목사가 신대원 졸업 후 처음 간 지였다. 김동석 기독교운동 하늘바람 대표는 “이기훈 목사님과 대학부원들은 신앙 통독 수련회에 갔는데 점심을 지어 먹은 뒤 눈싸움을 했다”며 웃었다. 김 대표는 “춘천동부교회에서의 경험은 좋은 목회자와 성도가 공동체를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알게 해줬다. 가장 영적 이면서 친밀한 모임이었다”고 기억했다.

남궁령 꿈꾸는교회 목사는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았는데 임신영 목사님이 교회 차원에서 신학생 장학제도를 마련해



내홍 딛고 재정비...루터회 정기총회 개최

제52차 정기총회 6~7일까지 열려

기독교한국루터회총회(루터회·총회장 김은섭 목사)가 6일 서울 용산구 소월로 중앙루터교회(최주훈 목사)에서 제52차 정기총회를 개회했다. 전직 총회장과 의의를 끝내며 재정비에 나선 총회였다.

김은섭 총회장은 진영석 전 총회장과 벌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지난 3년여간 교단과 관련된 모든 법적 다툼이 마

무리됐다고 밝히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서는 안 된다는 공감 속에 관련된 역사를 백서로 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명령”이라며 “교단의 화목과 일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총회장은 신학위원회 등에서 여성 목사 안수 문제를 논

한장순 대표 “24시간 내 가서 7일 내 구호”

국제 긴급구호기구 ‘메데이’ 한국지부 설립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 긴급구호기구 메데이(Medair) 한국지부 메데이코리아(대표 한장순)가 창립된다. 한장순 대표는 9일 “메데이코리아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메데어의 비전과 미션을 공유해 한국이 메데어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돕기 위해 설립됐다”며 “메데이코리아는 중보 기도, 스테프 양성, 재정 후원을 통해 글로벌 메데이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데어는 분쟁과 자연재해 24시간 안에 구호지역에 들어

가 3일 내 재난을 분석하고, 7일 이내에 긴급구호를 시작한다. 1988년 아프리카 우간다 난민들에 대한 긴급구호가 그 출발이다. 지난 35년간 전세계 42개국에서 구호 활동을 해왔다.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콩고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 등 12개국에서 응급의료지원 및 긴급구호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메데이 구호 수혜자는 382만여명이다.

메데어는 스위스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에 사무



국을 두고 있다. 1500명 이상이 스테프로 활동한다. 아시아 사무국은 한국이 처음이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 BHA), 유럽 시민보호인도적지원사무국(ECHO), 스위스 개발협력국(SDC), 영국국제개발처(UK Aid) 등이 메데어의 주요 후원자다. 메데어는 전체 지출의 약 92%를 긴급구호 활동에 사용한다.

한교봉, 포항 태풍 피해 주민들에게 심리 치료 진행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포항지역 시민들 대상

한국교회봉사단(한교봉)은 지난달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사진)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사는 지난 2일 포항오천교회(박성근 목사)에서 시작됐으며, 두 번째 행사는 9일 포항송

동교회(박희영 목사)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태풍 탓에 겪은 고통을 그림으로 표현한 뒤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포항시 기독교협의회(회장 유원식 목사)와 치유목회연구원(이사장 김의식 목사) 관계자들도 동참했다. 한교봉은 “향후 5차까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며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치유를 경험한 내용이 담긴 소책자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높은 일흔 찬송하고” 100년전 예배 재현한 이자익기념사업회

제8회 이자익목회자상 수상 감사예배를 드려

“높은 일흔 찬송하고/ 너른 은혜 감사하야/ 우리들의 노래 소래/ 한 곡도로 높혀보세.”

한국 최초의 연합 찬송가인 1908년 발행 ‘찬송가’에 수록된 우리나라 최초 5음 음계 찬양 ‘높은 일흔 찬송하고’가 울려 퍼졌다. 전북 김제 ‘기역(기)자’ 예배당엔 한복을 입은 성도들이 모였고, 여자석과 남자석 사이엔 100년전 모습 그대로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휘장이 드리워졌다. 찬송가 반주는 우리 귀에 익숙한 풍금을 사용했으며 구제연보 순서엔 옛날 식으로 막대기가 있는 현금용기가 등장했다.

이자익목사기념사업회는 지난 6일 전북 김제 금산교회 기역자(기) 예배당에서 제8회 이자익 목회자상 수상 감사예배를 드렸다고 10일 밝혔다. 기념사업회 상임이사인 문성모 강남제일교회 목사의 집례로 박

영 오정교회 장로가 풍금을 맡았고, 100년전 예배와 성찬식을 재현하기 위해 1925년 발행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식서’를 참고했다. 예배에 쓰인 성경은 1906년 출간된 ‘신약전서’였다. 설교문은 1951년 이자익 목사가 장로회보에 누가복음 2장 49~52절 말씀으로 기고한 글 ‘예수 그리스도의 독립하신 품행’이 김종원 김제 금산교회 목사의 육성으로 낭독됐다.

이자익(1879~1958) 목사는 2004년까지 역사 속에 묻혀있던 무명의 인물이었다. 장로교단의 전무후무한 3선 총회장이었지만, 조용히 농촌교회 목회를 이어갔기에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문성모 목사는 2004년 대전신학대 총장 당시 학교 50년사를 쓰면서 초대 교장이던 이 목사에 주목했다. 이후 금산교회 역사 속에서 지주였던 조덕삼 장로와 피고용인



으로 속해 일했던 이 목사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교회역사가 김수진 목사 등과 함께 발굴해 책으로 펴냈다.

기념사업회는 “이자익 목회자상은 교계의 유명 인사들에게 수여하는 상이 아니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농촌교회와 선교지를 섬기는 종들을 발굴해 세상에 소개하고 격려하는 상”이라고 전했다. 1회는 지리산선교동지회, 2회 방파선교회 총무 김영근 목사, 3회 한산성광교회 조병상 목사, 4회 김귀환 선교사, 5회 금산교회 이인수 목사, 6회 충북 보은 보나눔공동체, 7회 덕암교회 박경천 원로목사 등에 이어 올해 8회 김종양 아프리카 에스와티니 선교사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 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 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증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p>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p>	<p>전화: 646-501-3673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p>
---	--

SCAN ME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20)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전통과 혁신의 선교 사이에서 다시 생각하기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늙어가는 것과 늙어가는 것이다. 하나는 옹고집이 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더 많이 깊이 풀어줄 수 있는 쪽이 넓어지는 것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끊임없이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은 역량이 커질 수 있다. 애덤 그랜트는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새로운 것을 배워라. 무언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 우리 선교사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현장에 임해야 하고 현지인들을 대해야 한다. 현지인들로부터 끊임없이 무언가 배울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면 선교의 방향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할지 모른다. 새로운 선교지에 들어가서는 언어가 안되고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촉각은 배울 자세로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주위에 점점 익숙하여지고 이제 나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자만심과 교만은 움크리고 있던 기지개를 펴고 나타나게 된다. 이때가 위험한 때이다. 처음부터 그런 자세를 가지고 들어가는 선교사라면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배울 자세를 가지고 선교에 임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흐트러지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 한국 선교는 비교적 역사는 짧지만, 사전에 잘 준비하지 못하였음에도 선교지에서 뛰어난 열정과 임기응변에 능한 장점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외부환경의 급변하는 시대에는 더욱 잘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두에게 자연스러운 생애주기의 변화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교사 자신을 돌아보는 것 뿐 아니라 교회는 선교사들의 생애주기에 맞춘 돌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선교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배워야 한다. 똑똑한 성공의 경험을 가진 선교사 나 그런 경험을 가진 교회일수록 돌아봐야 할 때이다.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고정관념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 믿음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데 더 애를 먹는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 다시 생각하기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말한다. 2009년 여름 기준으로 미국 스마트폰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한 블랙베리였다. 특히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절

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선교지에서 30년 동안 이루어 놓은 열매가 앞으로 30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필립 테틀록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할 때 흔히 전혀 다른 세 사람의 사고방식 속으로 빠져든다고 하였다. 세 직업은 신학자, 검사, 정치가인데 자신이 성스럽게 여기는 믿음이 위험해질 때 자기의 이상을 보호하고 드높이기 위해 신학자가 되어 설교를 하고, 다른 사람의 논리에서 오류를 발견하면 검사가 되어 자신이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것을 늘어놓는다. 그

가 교회와 선교에 있어서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살펴본다면 유익이 있을 것이다. 개인 차원으로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는 과학자처럼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설교하거나 조목조목 따져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그들을 정치적으로 대하려는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고 한다. 그리고 새롭게 형성되는 견해를 하나의 예감이나 가설로 생각하고 이것을 데이터로 검증할 것을 말한다. 우리들의 의견과 충돌하는 정보를 찾아 우리들과 맞지 않은 의견들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선교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만으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방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제도적으로 일정한 교리나 조직에 매어 있는 개인이나 단체들은 교류의 폭을 넓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선교단체에서는 다른 의견을 발표하고 자유롭게 토의할 수 있는 틈이 있는지, 아니면 조금도 다른 것을 허용할 수 없

각하기에서 애덤 그랜트는 설득력 있는 경청의 기술을 연마하라고 조언한다.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데는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편이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런 것을 가장 잘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발언 대비 질문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왜 그런 견해를 가지게 되었는지 이유를 물어보라고 제안한다. 또한 어떤 증거가 당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는지 물어보며 상대방의 용어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살펴보라고 한다. 상대방이 어떻게 해서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되었는지 물어보면 상대방이 스스로 믿음을 평가하도록 돕고, 다른 시대나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다면 그 믿음과 다른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을지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이점들을 선교사와 사역자들이 개인전도에 적용한다면 아주 귀한 가르침이 될 것이다. 기독교를 발표하고 자유롭게 토의할 수 있는 틈이 있는지, 아니면 조금도 다른 것을 허용할 수 없

저항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무엇을 믿고 결정할 것인지는 자신의 믿음을 상대방에게 상기시켜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서로의 대화에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대화 자체에 대한 대화를 하고 감정적으로 나갈 때는 자기 감정에 대해 논평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 자신이 이해하는 내용을 검증하는 협상 전문가처럼 때로는 자신이 느끼는 실망과 좌절을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이런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대화를 풀어나가도록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선교단체들이 모인 협의회에서 다른 단체들과 관계적 어려움을 가지고, 이슈의 중심에 자주 서 있던 단체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협의회에서 탈퇴하고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다. 몇 교단에서는 심지어 이단 논란이 있었고, 교류 금지 집단으로 정해질 만큼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가 전쟁이 아니라 춤을 추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 단체에서는 자신들을 끊임 없이 돌아보고 다시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자주 교회에서나 개인 사이의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을 생산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회피하여 덮어두거나 피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언젠가 문제가 터질 때에는 더욱 큰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 선교 대응 고정관념 벗고 다시 생각하는 습관

대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사용되었던 것인데 5년 후에는 시장점유율이 1 퍼센트 미만으로 추락하였다. 그런 이유는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회사의 공동창업자이며 기술 및 제품과 관련한 모든 결정을 책임지고 있던 마이크 라자리디스가 다시 생각하는 것이 서툴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블랙베리라는 당대 최고의 제품을 만든 아이포니 나와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을 때에도 과거의 성공에 사로잡혀 새로운 생각을 접어버린 혁신자의 자세를 고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몇 번의 기회가 왔을 때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하지 않고 고집스러운 과거에 집착함으로써 블랙베리는 화려한 과거가 되어버렸다. 혹시 우리들은 부흥을 경험했던 과거에 매어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뒤떨어짐으로 새로운 시대를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철저한 돌아

러다가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할 때는 정치인이 되어 지지를 받기 위해 정치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생각하는 의견이 과연 옳은지 생각해보는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과학자처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사람들은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을 가지고 자기가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만 바라보거나 소망편향(desirability bias)을 가지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우를 범한다. 무엇보다 자신은 객관적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하는 편향을 가지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런 편향에 빠지기 쉽다. 그런데 과학자의 자세를 가지면 열린 마음으로 대응할 뿐 아니라 활발하게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며, 자기가 틀렸을 수도 있는 이유를 찾아내고 자기가 배운 것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생각을 새롭게 고치게 된다는 것이다. 애덤 그랜트의 제안을 우리

이 경직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신학교의 교수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성장한 동문 출신들 만이 있다면 비판적인 사고의 여유가 없을 것이다. 한국의 유명 학교들이 동종교배 퇴학의 법칙에도 불구하고 동문만을 고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아닐 것이다. 선교단체도 다른 단체들의 아이디어를 듣고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다른 단체들끼리 함께 모여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배울 수 있는 자유로운 열린 공간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와 미주에서는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경직된 조직이 아니라 자유롭게 서로를 알아가고 돕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서 이미 다가온 선교적 도전에 응답해야 할 것이 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다시 생

고 있는 진리를 바로 나누고자 하는 열정이 많은 경우 오히려 대화를 막아버리고 강압적으로 들리거나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된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하게 보인다. 그랜트는 상대방과 의견 불일치는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지만 공통점을 인정하고 논쟁은 전쟁이 아니라 춤과 같이 생각하고 기꺼이 협상할 수 있는 상대임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방은 방어적으로 되기 때문에 주장하는 여러 개의 이유나 근거를 가지고 대응하지 말고 가장 강력한 논점 몇 가지만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상대방에게 선택의 자유를 강화해주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사람들은 다른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저항하는 게 아니라 자기 행동이 상대방에게 통제된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려고

선교사가 자신의 현재를 철저히 돌아보고 래디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만들어질 때에 새 시대의 선교가 가능할 것이다. 교회가 부수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가 아닌 교회 본질의 인식으로 선교를 다시 생각할 때에 교회는 거듭나게 될 것이다. 선교단체가 선교사 개인과 모든 조직 변화에 대한 혁명적 발상의 가능성을 열고 돌아볼 때에 새로운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선교를 다시 생각하는 평생 학습 공동체로 바뀌어 나갈 때에 한국선교를 지면하는 것은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은 아픈 일이겠지만 필요할 뿐 아니라 마땅히 되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될 때 참으로 많은 열매가 있는 내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우주적 교회의 눈이 뜨일 때 밝은 내일은 찾아올 것이다. dr.yongcho@gmail.com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38. 바울이 만난 경건한 이방인들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고넬료, 루디아 그리고 고린도의 디도 유스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두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건한 이방인(Pious gentile)'입니다.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신약신학자들은 이들을 '하나님 경외자(God-fearer)' 혹은, '하나님 경배자(God-worshipper)'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경외자들은 개종하지 않은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할례를 받고 개종자(Proselyte)가 되면 유대인이 됩니다. 유대인은 혈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개종 절차를 통해 누구나 유대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경외자(God-fearer)

는 하나님을 섬겼으나 개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혈통은 이방인이었지만 신앙생활은 유대인과 거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경외자'들은 유대인들과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고, 회당을 출입하였고, 율법을 읽었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경외자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습니다. 유대인 백과사전은 1세기에 경건한 이방인(Pious Gentile), 즉, 하나님 경외자(God-fearer)들이 백만 명이상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필러서(David Flusser)나 헹겔(Martin Hengel)과 같은 학자들도 유대인 백과사전의 통계에 동의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와 강제 이주를 통해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삽니다. 그들은 각처에서 이방인 사회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와 유럽 전반에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전도를 받고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했습니다. 개종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건한 이방인들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이방인들이 기독교 복음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이 이방인 선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초대 교회 선교에 크게 기여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백부장 고넬료,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고린도 회당 옆집에 살았던 디도 유스도입니다. 이들이 1세기 기독교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토마스 핀(Thomas M. Finn)박사는 사도행전에 이방인을 “하나님 경외자(God-fearer) 혹은 하나님 예배자(God-worshipper)”라는 표현이 11번 등장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도행전을 전공한 대부분의 신약신학자들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11번의 경우 모두 이방인으로 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씀 듣고 참된 신자로 변화됩니다. 사도행전에 11번 등장하는 '경외하는'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구절을 정리해 보면 10장 2, 22 그리고 34-35절입니다. 13장 16, 26, 43, 그리고 50절입니다. 16장 14절, 17장 4, 17절입니다. 18장 7절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활동했던 지역이 광대합니다. 가이사랴, 비시디아 안디옥,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경외자' 혹은 '하나님 경배자'라는 표현은 없어도 이런 조건에 꼭 들어맞는 사람이 8장에 등장하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던 이

방인이었지만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학자들은 '하나님 경외자'는 로마 사회에서 각계각층에 있었고 전합니다. 낮게는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로부터 로마 황실의 실력자까지 다양했습니다. 문맹자도 있었지만 아테네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혹자는 사도행전의 수신자 데오빌로도 '하나님 경외자(God-fearer)'였다고 주장합니다. 데오빌로는 상당한 지위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약신학 학자들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두 백부장도 '하나님 경외자(God-fearer)'였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한 사람은 부하를 위해 예수님께 찾아와 믿음을 고백한 백부장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장을 경비하며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고백했던 백부장입니다. '하나님 경외자' 그룹은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신약학에서는 한동안 하나님 경외자의 존재도 몰랐습니다. 신약신학계에서도 하나님 경외자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비로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하나님 경외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

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 경외자(God-fearer)를 발견한 사람은 흥미롭게도 유대교 전합니다. 낮게는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로부터 로마 황실의 실력자까지 다양했습니다. 문맹자도 있었지만 아테네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혹자는 사도행전의 수신자 데오빌로도 '하나님 경외자(God-fearer)'였다고 주장합니다. 데오빌로는 상당한 지위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약신학 학자들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두 백부장도 '하나님 경외자(God-fearer)'였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한 사람은 부하를 위해 예수님께 찾아와 믿음을 고백한 백부장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장을 경비하며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고백했던 백부장입니다. '하나님 경외자' 그룹은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신약학에서는 한동안 하나님 경외자의 존재도 몰랐습니다. 신약신학계에서도 하나님 경외자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비로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하나님 경외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적그리스도의 활동 (계 17:1-2) 찬 478장

큰 음녀인 세상이 받은 심판에 관해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 큰 음녀가 앉은 자리는 많은 물 곧, 세상 나라를 가리킵니다. (1) 적그리스도와 결합된 그녀는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세운 자이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리에서 세상을 어지럽게 합니다. 마지막 때일 수록 그 활동은 극에 달합니다. 둘째, 땅임금들의 음행은 적그리스도께로 온 것입니다. (2) 이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대적하고 늘 높아진 자리에서 교회를 대적하는 비진리의 운동으로 나타납니다. 셋째, 땅의 거주민도 음행에 취하게 됩니다. (2) 그 비진리 운동은 그와 관계를 가진 모든 불행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시대의 혼란은 그에게서 온 것입니다. 진리로서 악한 세상을 이깁시다.

화 큰 음녀의 실제 (계 17:3-5) 찬 259장

큰 음녀로 상징된 세상은 그 실상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 붉은 짐승을 탄 여자의 모습입니다. (3)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마귀의 편에서 서서 사람을 멸망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요일 2:15) 둘째, 화려한 것으로 치장하여 유혹합니다. 세상의 모든 화려한 치장은 그 속에 사망의 독이 숨겨져 있습니다. 문화와 경제와 사회의 외부에 비추는 화려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진리를 모르는 문화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마지막에 멸망합니다. 셋째, 큰 바벨론의 이름을 가진 자로 땅의 음녀의 어머니가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을 가리켜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책망했습니다. 그 속에서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는 길뿐입니다. (요 14:6, 15:5)

수 큰 음녀의 활동 (계 17:6-8) 찬 301장

계속 요한은 세상의 활동 속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정체를 폭로합니다. 첫째, 그녀는 예수 증인의 피에 취한 자로 나타납니다. (6)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활동하는 무대인 세상은 수천년의 역사 속에 예수님의 증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며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둘째, 짐승의 비밀을 가졌습니다. (7) 요한이 세상의 잔혹한 행위를 보고 놀랄 때 보여진 적그리스도의 비밀은 온 세상으로 더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며 마귀의 목적을 이루는 세상의 공포스러운 행위는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셋째, 불행자들이 짐승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8) 세상과 결합된 마귀와 적그리스도는 최후의 발악을 하여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 때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 내 속에 있는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미워하는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목 큰 음녀의 권세 (계 17:9-12) 찬 393장

성령은 요한에게 그 세상의 실상을 더 자세히 말합니다. 첫째, 그것은 일곱 왕의 권세를 통해 일합니다. (9) 세상은 정권을 통하여 확장되고 그 권세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완전한 정권도 인자의 권위 앞에 무력화됩니다. 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여덟째 왕이 출현합니다. (11) 일곱왕이 모두 망하고 돌아오는 여덟째 왕은 멸망으로 나아가는 적그리스도를 예견하게 합니다. 셋째, 여러 상징으로 묘사된 세상의 흐름은 다시 열 뿔로 나옵니다. (12) 이 모든 상징은 세상과 세상의 정권과 결합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준비시킵니다.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왕으로 살아갑니다. (롬 5:21)

금 큰 음녀를 이길 자 (계 17:13-14) 찬 178장

이렇게 악과 결합된 세상을 이길 자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지혜를 가집니까? 첫째, 세상의 문화 발달에 초점을 맞춥니다. (13) 세상 정권을 장악한 마귀는 언제나 세상 문화의 발달로 기울어져 그리스도를 떠나 패락의 노예로 살게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 세상은 언제나 어린양과 싸웁니다. (14) 세상을 사용하는

토 큰 음녀의 최후 (계 17:15-18) 찬 474장

첫째, 음녀가 앉은 물 (15) 세상이 차지하는 모든 것이 물로 표현되어 그것이 백성, 무리, 열국, 그리고 방언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세상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으로 하나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둘째, 세상, 적그리스도 그리고 마귀의 싸움이 서로 일어납니다. (15-16) 이들은 서로 하나 된 것처럼 보이거나 결국 자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혼돈 공허 흑암이 세상을 덮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나 세상은 언제나 흑암에 쌓여 우리를 혼란케 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에게 세상을 잠시 허락하십니다. (17-18) 아무리 세상이 불신해도 하나님의 주권의 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적그리스도까지도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의 손을 바라보는 자만이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교회음악 이야기(22)

페니 크로스비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예수마음"이라는 작은 북클럽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 필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까운 거리에 있는 "라카나다"라는 도시를 방문합니다. 모임이 아침 이른 시간이라서 동이 막 틀 무렵에 하이웨이를 타고 북쪽을 향해 올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얼마 전 그 모임을 위해 가는 여정이 필자에게 깊은 인상과 함께 작은 깨달음을 갖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곳을 향해 높은 곳으로 점점 다다르다 보면 도시에서 느끼지 못하는 새벽 아침 공기에서 풍기는 상쾌하고 깨끗한 향내, 길 양편으로 자욱하게 펼쳐진 아침 안개 사이로 스쳐 보이는 아름다운 집들, 그리고 정면으로 다가오는 거대하고 웅장한 산세들. 이 모든 것들에서 비추어지는 신로움속에서 깊은 황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치 천성을 향해 올라갈 때 펼쳐지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머리를 스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나그네의 여정이 다하는 시간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고 이 기쁨을 소유한 채 세상에서 마지막을 대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하는 작은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며 필자는 유명한 찬송작가 페니 크로스비 (Fanny Crosby, 1820-1915)와 그녀의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Bless the Assurance)"를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크로스비는 생후 6주 즈음에 어느 한 의사의 실수로 평생을 맹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장애를 넘어 6살 때 부터 찬송시를 만들기 시작해서 95년 생애 동안 약 8000여 편의 찬송시를 남기며 19세기 후반 미국의 3차 부흥운동에 가장 위대한 찬송 작가로 미국의 부흥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15세에 뉴욕 시각장애인 연구소(New York Institute of the Blind)의 학생이 되었고 22세에 연구소에서 수사학과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한편 미국 상원에서 공식적으로 연설한 최초의 여성으로 남기도 하였습니다.

그녀가 83세 된 해에 어느 기자와 인터뷰를 한 내용들을 보면 필자는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장님으로 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복된 섭리로 의도된 것이라고 답대히 말합니다. 자신을 맹인이 되게 한 그 의사에게 가족들은 유감을 표명하지만 자신은 그를 만나면 다음과 같은 말을 건네고 싶다고 이야기 합니다. "당신의 실수를 통해 그렇게 된 것이 라면 나를 장님으로 만들어 주어서 오히려 고맙고 거듭 감사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들어 이야기 합니다. 하나는 '자신을 장님으로 되게 한 것이 의사의 실수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더 잘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육체적으로 어둠 속에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를 향한 의도였다는 사실을 크로스비 자신은 바로 알았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비록 세상의 멋진 광경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했지만 세상의 매우 어지럽고 불쾌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에 손을 얹으셔서 세상의 잔인함과 쓰라린 불친절들, 그리고 불행한 모습들을 보지 못하게 덮으신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크로스비의 마음이 영향력있는 찬송의 시로 쓰여지게 되었고 그것이 찬양으로 만들어진 것 중 하나가 바로 "예수로 나의 구

주삼고(Bless the Assurance, Jesus is Mine)"입니다. 이 찬송을 작곡한 포에비 팔머 넵 (Phoebe Palmer Knapp, 1839-1908)이 1873년 어느 날 자신의 집에 대형 오르간을 설치하게 되어 친구인 크로스비를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오르간은 완성되지 못하고 피아노로 방금 떠오른 멜로디라고 하며 하나의 선율을 크로스비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는 이 멜로디를 통해 떠오르는 영감이 무엇이나고 문자 크로스비는 즉흥적으로 "Bless the assurance Jesus is mine (축복의 확신, 예수님은 나의 것, 나의 전부)"라고 말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가사가 만들어졌고 피아넌이 멜로디를 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찬송은 1873년 7월호 "Palmer's Guide to Holiness and Revival Miscellany"에 실리게 되었고 당시 미국의 3차 대각성부흥운동에 가장 영향력있는 찬송 중 하나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크로스비가 후렴구에 지속적으로 고백합니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고백이요 찬송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반응하여 우리가 행해야 할 사명입니다. 한편 이것이 곧 우리를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미국 최고 의사로 11차례 선정된 세계적인 암 치료 권위자 김신의 박사(MD 앤더슨 암 치료 센터)가 어느 강연회에서 말하는 내용 가운데 흥미로운 것이 있어 코테이션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조사해 보니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 모차르트나 브람스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치료가 더 잘 됩니다. 이유는 백혈구 안에 nkc (natural killer cells, 모든 병을 저항해서 싸우는 세포)가 보통 사람보다 1000배가 더 높게 조사 됩니다. 그런데 더 많이 조사해 보니 교회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들은 1500배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훨씬 암에 덜 걸리고 걸려도 빨리 낫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필자가 이 코테이션을 한 것은 오래 살기 위해 찬송을 많이 하시라는 의미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의 예배자들이 현대 문명이 주는 영향으로 예배에서조차 찬양을 드리기보다 오히려 찬양을 구경하는 때가 많이 있음에 안타까움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되는 예배자가 되지 말고 끊임없이 맘을 흘리며 연주(Perform)하는 찬양하는 찬양자,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리고 생애가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크로스비의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체스터턴(G. K Chesterton 1874-1936)이 그의 책 "정통(Orthodoxy)에서 "미치광이가 되는일은 쉽다. 이단이 되는것도 쉽다. 현 시대를 그냥 따라가는 편이 언제나 쉬운법이다. 어려운것은 자신을 잃지 않고 지키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일을 엄청 힘든일입니다. 하지만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평범하지 않은 자신의 상황에서, 그리고 세상적으로 닦쳐지는 어떠한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자신의 것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iyoon@wm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증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북지점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남지점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신로 편지

인도네시아

어제는 마나도에 있는 수뿔포 쓰레기 마을을 방문해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집회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비가 세차게 왔지만, 비를 뚫고 어린이들이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이곳은 마나도의 온갖 쓰레기가 버려지는 마을입니다. 더럽고 악취가 나고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린이들은 마냥 즐겁고 천진난만합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을 (찬양, 워십댄스, 복음 제시, 드라마, 말씀, 크래프트, 스낵, 선물) 통해 아이들에게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몇몇의 모슬렘 어린이들도 참석해서 복음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들 마음에 복음이 싹이 나고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나도 영어 커뮤니티 주일 예배 사역이 있고 저는 말씀을 전하고 Acts 29팀은 어린이 사역을 합니다. 소외된 영어권 어린이들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주님을 만날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2일에는 마나도에서 2시간 떨어진 마칼레론 마을 어린이 집회가 (70~80명)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속해서 어린이 사역을 도우며 지속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두 대의 차량으로 Acts 29팀이 오고 가는 길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도로가 좁고 험하고 난간이 없는 위험한 산길을 오고 가야 하지만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0월 사역

- 8일 - 수뿔포 쓰레기 마을 어린이 사역 (60명)
9일 - 마나도 영어 커뮤니티 예배 사역, 마나도 영어권 어린이 사역
15일 - Acts 29 제자훈련 중강
16일 - 워리사 교회 사역
22일 - 마칼레론 마을 어린이 집회 (70~80명)
11월 4일 - 30일 : 이성철,이혜정 선교사 미국 방문. 둘째딸 주디 결혼
이성철 이혜정 선교사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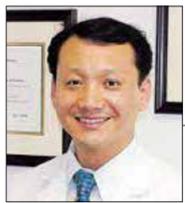
- ▲ 국가명: 동남아시아 M국
▲ 종족명: 팜 & 새둥지 종족
▲ 인구: 약 15,000명 (팜 종족 3,000명, 새둥지 종족 12,000명)
▲ 종족의 종교: 팜 종족: 기독교, 이슬람교, 무속 신앙; 새둥지 종족: 이슬람교
▲ 종족 교회 상황: 침례교 1, 천주교1, 성공회6, 안식교1, 순복음1
▲ 모델 되신 분에 대한 특이사항: 성공회 교회의 핑신도 지도자이다. 설교자이며 마을 이장이었다. 성경 번역과 점검 사역을 하다가 별세하였다.

- ▲ 기도제목: 팜 종족과 새둥지 종족은 60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지만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1. 성경 번역과 점검, 성경 활용 사역을 하고 있는 팜종족 현지인 사역자들이 영적

으로 성장해 가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2. 번역된 성경과 성경 활동 자료들을 웹사이트에 올려놓았는데 이 웹사이트를 통해 새둥지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그레이브스병

갑상샘은 목의 앞쪽, 흔히 아담의 사과(Adam's apple)라고 불리는 부위 아래에 위치한 길이 4-5센티미터, 넓이 1-2센티미터, 무게 30그램 정도의 나비모양 내분비기관이다. 이 장기에서 분비되는 갑상샘호르몬은 체온을 유지하고 열을 생산하고 뇌와 뼈의 발육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갑상샘 호르몬이 너무 많이 생산(기능항진)되거나 적게 만들어지면(기능저하) 신체의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씨는 3개월 전부터 눈이 건조하고 물체가 두 개로 보였다. 지난 6개월 동안 김 씨는 몹시 피곤하고 조금만 힘든 일을 하면 몹시 피곤해 했다. 식욕은 좋지만 몸무게가 6개월 동안 5킬로그램 줄었다. 또 심장이 몹시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고 최근에는 설사가 자주 나왔으며 월경 주기도 불규칙적이었다. 검진상 김 씨의 혈압은 110/80mmhg으로 정상이었으며 맥박은 분당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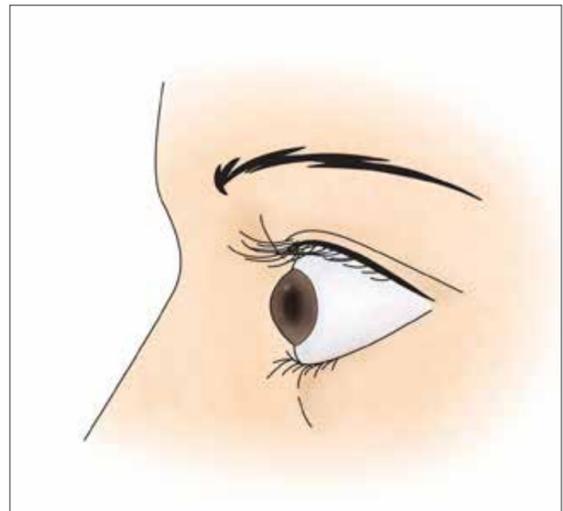
회로 빨랐다. 김 씨는 육안으로 보기도 안구가 돌출되어 보였고 갑상샘이 커져 보였으며 미세한 손떨림이 보였다. 청진상 심장 맥박은 빨랐지만 규칙적으로 들렸다. 혈액 검사상 갑상샘 호르몬 수치가 현저하게 증가되어 있었다. 김 씨는 갑상샘 항진증의 일종인 그레이브스병으로 진단받고 항갑상샘 약물치료를 시작했으며 증상을 없애기 위해 서 베타차단제를 함께 복용하도

너무 많은 갑상샘호르몬 생성이 문제

록했다. 그레이브스병(Grave's disease)은 갑상샘 항진증의 가장 흔한 형태인데 이는 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신체 내에서 갑상샘 호르몬의 생산을 자극하는 항체가 생기면서 너무 많은 갑상샘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병을 말한다. 주로 발병하는 나이는 20-40세로 여성에서 더 흔하지만 남성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노인층에게도 생길 수 있다. 그레이브스병의 진단은 병력과 혈액검사로 진단하는데, 필요하다면 초음파나 스캔을 하고 조직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치료는 먼저 갑상샘 호르몬의 생산을 줄이는 것이 목표인데 항갑상샘 약물치료를 시작해서 2주 정도 지나면 증상의 호전을 볼 수 있다. 치료기간은 평균 2-3년인데 중간에 좋아져서 약을 끊을 수 있지만 치료 후에도 재발할 수 있다. 항갑상샘 약물만으로 치료되

지 않는 경우는 방사선을 내는 요오드를 정제나 물약으로 만들어서 복용하면 요오드가 갑상샘 조직을 직접적으로 파괴해서 갑상샘 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킨다. 이때 발생하는 방사선의 양은 아주 적어서 암을 유발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평가해 널리 시술된다. 다만, 이 시술을 한 환자의 대부분에서 갑상샘 저하증이 생기

고 임신부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단점이다 또 효과를 보려면 평균 6-18주가 걸리므로 심장이 약한 노인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 갑상샘 항진증은 젊은 남성에서 탈모 및 발기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청소년에서는 정서불안, 학업부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기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for the East (NY, NJ) and Hawaii & West Coast regions. Includes contact info for various churches like 뉴욕중앙장로교회, 뉴저지성도교회, and others.

이성자 기자의 **바이블에세이**

지혜로운 선택

오늘날 우리는 날마다 부단히 선택하며 살아간다. 우선 일상 용품부터 시작해서 의복이나 신발, 주택이나 가재도구, 그리고 즐겨보는 책들을 선택한다. 직업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심지어는 종교까지 모든 것을 선택하며 살아간다. 누구에게나 선택은 자유다. 그러나 선택의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 지혜로운 선택은 보람과 행복을 가져오고, 어리석은 선택은 후회와 불행을 가져온다. 이러한 의미

에서 인생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브람과 롯은 오랜 세월 동

서 종종 다투는 시비가 벌어져 삼촌 아브람과 조카 롯의 사이에 불행스러운 일이 자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창 13:9)

안 삶을 같이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두 사람이 성장할 대로 성장했고, 재산도 많아졌고, 특히 종들의 수가 많아져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아브람은 결심하기를 서로 발전적인 나눔이 필요하다 생각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높은 언덕에 올라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한 후 롯으로 하여금 살 지역을 먼저 선택하게 했다. 롯이 본즉 요단강 동편 소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하여 푸른 초장이 전개되어 있었고,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은 황폐한 돌 짝 밭이었다. 그래서 롯은 신중하게 생각하거나 심

택했지만,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었으며, 그들의 도시 문명과 부도덕, 성적 타락은 유향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도 가정이 파괴되고 모든 재산이 소실되었으며 심각하게도 아버지와의 불륜의 관계로 지구상에 간악한 두 민족 모압과 암몬을 만들어 내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만족과 쾌락의 선택은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의 교훈이다. 오늘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부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난을 선택하라. 혼자만을 위한 독점보다 모두를 위한 나눔을 선택하라. 현실적인 영화보다

소망이 있는 비전을 선택하라. 일시적인 안일보다 보람을 창조하는 수고를 선택하라. 감각적인 쾌락보다 심후한 고난을 선택하라. 나태한 쉼보다 땀을 흘리는 노동을 선택하라. 속임수의 거짓보다 영원한 진실을 선택하라. 험뜯고 시기하는 미움보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랑 선택하라.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보다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을 선택하라. 회의와 의혹의 불신앙보다 신뢰와 믿음의 신앙을 선택하라. 지옥 생활보다 천국 생활을 선택하라.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만나는 선택의 길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우리 모두 행복한 사람들이 되자.

sjkcdc@hanmail.net

현실에서 느끼는 실존적 위협...

(1면에서 계속)

그런데 집단적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때로는 독단적인 태도를 갖게 되거나 외부인에 대한 적대감을 보이기도 한다. 불안을 덜기 위해 집단적 정체성을 추구하다가, 그것과 다르거나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들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전형적인 실험이 있다. 우선 심리학자들은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죽을 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글로 쓰라고 했다. 반면 통제 집단은 치아 통증과 같은 아주 불쾌한 것에 대해 글을 썼다. 단 통제 집단의 주제는 피하고 싶은 하나 꼭 자신의 실존적 취약성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은 아니었다.

잠시 후,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문화를 지지하거나 혹은 비판하는 글이 주어졌다. 예를 들어 그들이 미국 시민이라면, 미국의 자유를 칭송하는 글이나 미국의 경제 불평등을 강조한 글을 읽게 된 것이다. 그런 다음 그들은 글에 대한 평가와 해당 글의 저자를 얼마나 만나고 싶은지 등에 대해 답했다.

처음에는 심리학자들이 예상했던 효과가 나타났다. 글을 쓰며 죽음에 대해 떠올린 참가자들은 자신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지지하는 수필가들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의 문화를 비판한 수필가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이 연구

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일부 연구팀이 동일한 결과를 찾아내려고 해봤지만,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독일 뤼네부르크의 로이파나 대학에서 응용 사회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이몬 윈틀러는 "우리가 가진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연구마다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를 설명하는 가설 중 하나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조건은 행동을 바꿀 만큼 충분한 실존적 불안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것. 반면 실생활에선 그런 일이 더 두드러진다는 설명이 있다.

실제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취약성을 인식하게 만드는 심각한 질병을 겪은 후, 사람들이 더욱 극단적인 의견을 갖게 된다는 연구도 있다.

실존적 불안이 가진 영향력을 과해진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가 있다.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전 세계적 위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분석한 것이다.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에서 알모그 심존이 사회 심리학자 미카엘 갈리아드의 지도 하에 쓴 박사논문이 대표적이다.

심존은 테러 행위로 사람들이 실존적 위협을 느끼면 그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해하고 싶었다. 이를 위해 그는 2016년과 2018년 사이에 트위터에 올라온 250만여 개 게시물을 분석했다. 2016년 6월 플로리다 올랜도의 펄스 나이트 클럽 총격 사건, 2017년 1월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 공항 총격 사건, 2017년 5월 맨체스터 아레나 폭발 등이 벌어진 기간이다.

사람들의 의견이 어떠한지 측정하기 위해 그는 "절대적으로(absolutely)", "결코(never)", "분명히(clearly)", "극단적으로(extremely)" 또는 "부정할 수 없는(undeniable)" 등과 같은 단어를 의견에 대한 확실성의 표시로 분류했다. 현재 영국 브리스톨 대학에 있는 심존은 "이러한 표현들은 의견 사이에 다른 미묘한 차이를 용인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테러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이들 단어가 올라온 빈도를 계산한 결과,



그는 각 사건 이후 사람들의 언어에서 확실성을 담은 표현이 20% 이상 증가했다는 것을 찾아냈다. 그는 사람들의 트위터에 올린 글의 주제까지 세세하게 따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향을 보면 특정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들이 가진 신념은 보다 독단적이 되면서, 미세한 차이를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변했다.

자신의 연구에서 나온 발견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심존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조사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미국 뉴욕주에서 2020

년 2월 25일부터 4월 15일 사이에 트위터에 게시된 80만 건의 글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예상대로 사람들이 감염이라는 일상 위험을 겪으면서 확실성을 담은 단어의 사용이 급격하게 늘었다. 자신의 의견에 대한 독단적인 태도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이러한 발견은 공포 관리 이론과도 잘 들어맞는다. 우리가 뉴스에서 고통스러운 사건에 대해 읽을 때,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취약성을 떠올린다. 그 결과 우리는 불확실성

을 더 키울 수 있는 의견의 차이를 무시하려 애쓰게 된다. 대신 우리는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과 세계관을 분명히 드러내며 '혹이 아니면 백이 되는' 의견을 쫓게 된다.

심존은 음모론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다. 실존적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덜기 위해 눈 앞에 놓인 위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에 기대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레딧' 사이트에서 자신이 모든

답을 알고 있고 누구를 비난해야 하는지를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한테 매료되는 거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인 안-빌헬름 반 프로이엔도 음모론이 테러와 전쟁, 심각한 자연재해와 같은 실존적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사건 뒤에 급증한다는 것을 연구로 밝혀냈다. 말하자면, 소외된 외부 집단을 자신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집단으로 낙인찍거나 그들이 그러한 위협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고 몰아세우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실존적 위협에 거의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이런 반응은 비생산적이고 실제로 위협을 제대로 없애지 못한다. 심존은 이러한 예로 코로나19를 둘러싼 양극화된 논쟁과 음모론을 들었다. 따라서 우리는 위기에 대해 지나치게 단순한 설명과 해결책을 추구하기보다는, 유연하게 생각하고 당면한 상황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수용해야 한다. 다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절망의 감정을 창조적 행위로 바꾸며 실존적 불안을 건설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다.

어떤 이론에 따르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창조적 노력은 실존적 불안을 진정시켜준다. 예술적 창작 활동이나 혁신적인 노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회를 이롭게 하겠다는 의지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실험도 있었다. 물론 사례

연구가 더 필요하긴 하지만, 최근 연구를 보면 창조적 노력의 효과는 크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해 중국 난카이 대학의 유-신 추이(Yu-Xin Cui) 연구팀이 수행한 연구도 이를 보여준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이 자선 단체 모금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하는 동안 코로나 사망자 증가에 대한 불안감이 잦아드는 것을 발견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학의 선임 연구원 로빈 페라치는 자신의 최근 연구에서 이러한 효과의 크기도 그 사람이 가진 기존 견해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미 창의성의 힘을 믿고 창조적인 추구자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였다면 효과를 볼 가능성이 더 크죠."

팬데믹을 되돌아보면, 실제로 위기 상황에서 창조적인 시도가 많이 일어났다. 대도시의 팬데믹 속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기리는 벽화가 앞다투어 거리를 장식했던 것이나 많은 가수 및 밴드가 팬들을 응원하기 위해 무료로 콘서트를 열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뉴스에 등장하는 전 세계적인 위협을 쉽게 무시하지 못한다. 그러나 음모론이나 양극화된 사고로 위안을 찾기보다, 우리는 주변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음악과 예술, 혁신적 기술은 그러한 노력이 해볼 수 있는 분야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영국 정부는 동기 부여를 위해 포스터를 만들었다. 그 내용을 오늘날 다른 식으로 인용하자면, 침착함을 유지하고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것이 실존적 위협에 대처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제3회 선교사 자녀 장학기금 마련 골프 토너먼트



출인원 Cash
\$20,000

2022년 10월 24일(월)
10:30 AM(접수) 12:00 PM(샷진)
Los Coyote Country Club
8888 Los Coyotes Dr, Buena Park, CA 90621

참가비: \$150 (그린피 및 점심, 저녁 만찬 포함)
경품: 출인원 Cash \$20,000, 한국양복항공권, 골프용품 및 생활용품 등 무제한 경품 준비

대회장: 김영대 목사(연목회 이사장, OC목사회 중경회장)
부대회장: 황선철(CBMC 중경 총회장, 유중배(Dimax Express 대표) 명예대회장: 한기홍 목사(은혜안인교회 담임)
명예공동대회장: 신영세, 한창훈, 엄재선, 전 홍, 김도영, 김영수, 차원도, 이소연, 신동혁
총괄준비위원장: 민 김 집행위원장: 이원표 집행부위원장: 윤강혁
후원연론사: 한국일보, 중앙일보, [뉴스매거진]사람과사회, 미주복음방송, 미주크리스천신문, 기독교일보, 크리스천비전, 크리스천위클리, 크리스천헤럴드, CTS America, CHTV
후 원: OC기독교교회협의회, OC목사회, OC한인여성성서회, OC정리협의회, 세계기독교여매거지기도회, CBMC, OC한인회
협 찬: 센터미디어그룹, 플러튼악국, 한솔보험, Dimax, 오렌지호스피스, 제임스윌드와이드, 칼라릭, 김스피노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Orange County Korean Christians Association

www.ockca.org / info@ockca.org / 유튜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회장: 신 용 (562.399.2022) 이사장: 윤우경 (213.500.5449)